

Problems of the Conceptual Foundations in Psychology (I): The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on the Theory of Science in Psychology

Jung-Mo Lee

Sung Kyun Kwan University  
[jmlee@skku.edu](mailto:jmlee@skku.edu)

[Abstract]

In an attempt to critically analyze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psychology, the theory of science that psychology had adopted were analyzed. First, the implicit and explicit presuppositions in conducting scientific research were analyzed,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erceived View' of science were described. After that the critiques of science by postmodernism were described and the meta and empirical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to the theory of science were discussed. A new possible way of reformulat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science in psychology was proposed.

-----

- \* This is the manuscript version of the paper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1994, 13,1, 21-61.
- \* The text is in Korean.

=====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제문제 (1):

과학이론의 재구성과 인지주의 심리학 연구의 의의<sup>1)</sup>

이 정모

(성균관대)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제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심리학이 적용하고 있는 과학이론의 기본적 전제 개념들을 분석하고 과학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가 전제하는 가정들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인지주의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과학이론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고, 끝으로 심리학의 과학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

1). 이 논문에 대하여 조언을 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한다. 철학 분야의 정대현 교수, 김선희 박사, 익명의 심사위원, 심리학 분야의 방희정, 이재호 박사, 이건효 선생, 익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최훈석, 김도형 군에게 감사한다. 저자의 지식의 짧음과 시간적 제한의 이유로 조언들을 충분히 고려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은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되었음(이정모, 1995)을 밝혀 둔다.

## 1. 서론

심리학이 철학자들의 사변적 탐구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과학 특히 실험생리학의 과학적 방법을 Wundt가 도입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심리학이 독립적 학문으로 출발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사회과학, 생명과학, 정보과학 등에서 하나의 기초학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 방법이 제반 심리현상에 광범하게 조직적으로 적용되어 상당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 결과가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현상에는 수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이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학자들과 일반인들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하나의 과학 분야로서 확립될 수 있기 위하여 심리학은 그 동안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을 강조하며 한 세기를 매진하여 왔고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심리학으로서의 업적과 인정을 획득한 연후인 지금에 이르러 그동안에 추구하며 표방해 온 과학적 심리학의 틀을 다시 조명해 본다면 심리학이 기초로 하고 있는 전통적 과학관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심리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과학적 심리학을 표방하며 도입한 과학의 틀, 즉 과학이론(theory of science)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초기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한 전통적인 통념적 관점('Received View'; Suppe, 1977)의 과학관을 비판 없이, 그리고 세부적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분석 없이 받아 들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제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 시점에서 심리학이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 과학이론의 틀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있다면 심리학에서 취해야 하는 과학이론은, 과학적 방법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는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학적 방법론은 본질적으로 경험적 자료에서 이론을 구성하는 문제이고 이는 인간 인지 과정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학의 논의에서 인지심리학적 논의를 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연관에서 이 논문에서는 과학의 본질적인 전제와 가정들, 전통적 과학관의 특성, 인지심리학적 연구가 과학이론에 주는 의의 등을 중심으로 과학적 심리학의 기초를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과학의 본질은 지식의 체계화에 있다. 인간이 지식을 체계화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적 연구 요소의 측면, 이론의 측면, 그리고 메타이론적 또는 철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Madsen, 1987). 흔히 과학이론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라 하면 전자를 지칭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과학이론과 방법론을 논하자면 이 세 측면을 다 포함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심리학 내에서의 이론심리학의 부상과 인지심리학과 과학철학의 연결이 시도되면서 과학이론 일반과 심리학의 방법론에 대한 메타이론적으로 재평가가 수행되고 있다(이론심리학 잡지인 'Theory & Psychology'라던가, Praeger 출판사의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총서 등에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재평가적 분석에 의해 드러난 것은, 심리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통적 논리실증주의 위주의 과학관과 방법론 이론이 실제로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인간의 인지적 행위의 현실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또 메타이론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제시된 부적절한 방법론이었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래,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것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첫째의 측면, 즉 경험적 타당화 중심 연구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생각해

왔다. 인지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둘째의 측면 즉, 이론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셋째 측면의 분석, 즉 과학적 활동에서의 인지 행위와 지식체계화 행위의 메타이론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를 분석하는 메타수준의 분석을 통해 심리학에서 과학적 방법론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인식론과 방법론의 과학철학적 논의가 인지심리학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최근에 인지과학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이론심리학이 하나의 독립적 연구 영역으로 대두함과 더불어 가능해 졌다(이정모, 1995).

이론심리학의 대두와 인지과학의 개념적 기초를 탐색하려는 시도들에서 비롯된 메타 수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첫째로 심리학에서 경험적 검증 방법 중심의 과학 이론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 너무 편협하게 개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이정모, 1988a). 과학적 방법을 논할 때에는 항상 이론의 생성, 발전의 측면과 메타 수준, 즉 개념적 기초 수준의 측면을 경험적 타당화와 함께 논해야 한다(Toulmin, 1984). 그러나 심리학에서의 방법론의 기초가 된 전통적(통념적) 과학관은 이러한 측면들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는, 경험적 측면과 더불어 다른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심리학 내에서의 전통적(통념적) 과학관과 방법론 이론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 개념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전제와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정모, 1988c, 1989). 이러한 기본개념적 요소들이 모두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는 과학의 이론,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 철학자들의 이성적 분석에 의해 처방적 규칙 또는 규범으로써 주어질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과학이론이나 과학적 방법론도 하나의 지식체계인데 실제로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인간의 인지 행위적 현실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철학자들의 이성적 분석에 의해서만 제시된 과학이론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식의 획득과 체계화의 문제를 다루는 본령인 인식론이 더 이상 철학만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인지과학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경험적 인지심리학이 인식론을 대체하거나(Quine, 1969), 인식론이 인지심리학 내지는 인지과학 연구에 흡수되어야 하거나(Kornblith, 1986), 아니면 적어도 인식론의 상당한 부분이 인지심리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Corlett, 1991; Goldman, 1985, 1986) 것이다. 따라서 인식론에 기초한 과학이론 연구가 인지심리학 또는 인지과학의 연구 영역이 되어야 하며 "과학의 인지심리학" 또는 "과학의 인지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iere, 1988).

끝으로, 인식론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합리성의 문제에 대하여 인지심리학적 연구는 본질적인 회의를 제기한다. 전통적인 데칼트적 인식론은 서구의 합리론에 기초해 있다. 합리론은 인간 이성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지닌다. 따라서 데칼트적 인식론에 기초한 전통적 과학관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전제한 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행위의 타당성,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행위가, 따라서 과학이라는 체계가 합리적임을 가정해야 하고 이러한 합리성은 과학 자체에서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대상을 인식하고, 자연의 법칙을 추론하는 과학적 행위를 통하여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학자의 이성에서 비롯된다. 과학의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가정할 수 없다면 과학의 합리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 과학관에서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당연시하였고, 따라서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성과 믿음이 최근의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었다. 과연 인간 이성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한 심각한 재성찰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이 제기하고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마치 심리학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의 과정을 분석하고 마음의 이론을 제시하는 재귀적 특성을 지니듯이, 과학의 한 분야인 인지심리학 또는 인지과학이 과학 자체를 분석하고 과학의 이론을 제시해야 하는 재귀적 특성을 지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 활동과 지식 형성의 주체자인 인간의 인지적 활동 특성에 근거하여 과학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지의 일환으로서, 먼저 과학적 연구의 일반적 전제와 가정들이 무엇인가를 경험적 자료와 이론의 관계에 강조를 두어 개관하고, 다음에 전통적 과학관의 특성을 약술하고, 인지심리학적 연구가 과학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에 어떠한 의의를 주는가를 인식론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 그리고 설명 이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 다음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문 사회과학적 사조들이 기존의 전통적 과학관에 어떠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논하고, 끝으로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심리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과학이론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 2. 과학적 연구의 전제와 가정들

과학적 연구는 과학에 대한 메타이론적인 여러 가지 전제들과 가정들 위에서 출발된다.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적 연구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 방법인가, 경험적 자료는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가, 경험에 근거한 이론의 타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인간의 인식 특성은 어떠한가, 각종의 과학적 추론을 하는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가, 과학에는 합리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전제, 가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위에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이론을 형성하고 이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학적 행위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과 같다(이정모, 1988a; Baron, 1994). 한 인간은 수동적으로 환경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나름대로 일정한 정보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환경의 세상사에 대한 해석을 표상(representation)으로 구성하여 지식으로 지니게 된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는 특정 세상 자극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기, 취사선택하기, 비중을 부여하기, 조직화하기, 재구성하기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 또는 원리가 적용된다. 한 인간이 환경현상을 인식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개념적 틀과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현상을 취사선택하고 추상화하고 재구성하여 과학적 지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을 과학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표상'을 형성하고 축적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전제와 가정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전제들, 가정들이 무엇인가를 경험적 자료의 획득과 이론의 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과학적 표상으로서의 과학적 지식은 이론과 방법의 두 측면을 갖는다. 이론은 과학적 연구 대상들의 속성들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며, 방법은 이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제공한다. 이론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객관적 경험적 증거에 의한 타당화(validation)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경험적 증거와 이론이 잘 부합 또는 대응되느냐에 의해 이론의 진위 여부가 가려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이론의 진위 여부를 결정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경험적 자료의 획득과 이를 근거로 한 이론의 타당화에 대해서 보더라도, 어떠한 하나의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개념적, 이론적 명제들이 전제되고 가정되어야 한다. 자료의 획득 과정에는 현상을 분류하는 데에서부터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제와 가정들이 층층이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엄밀하며 순수한 경험적 자료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또 경험적으로 뚜렷한 자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에는 더 많은 부가적 가정들과 전제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어떠한 경험적 자료를 관찰하는 과정, 특히 실험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과, 그 자료를 근거로 이론적 가설에 대해 어떠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 밑에는 수많은 전제들과 가정들이 놓여 있다. 하나의 현상을 언어적 개념으로 의미화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같은 유형들로 묶고 이를 통제된 상황 아래서 관찰하고, 그 관찰된 바를 수량화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연구 가설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존의 과학적 지식체계에 통합하는 이 모든 과학적 연구 과정들의 밑바탕에는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기초 개념들과 전제와 가정들이 암묵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전제와 가정들에 대하여 과학철학자들과 각 학문의 과학이론가들이 이미 논의해 오기는 했으나 이러한 논의는 대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이론적 분석을 스스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심리학 연구자들은 자신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가정들과,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기초개념들의 정확한 의미와 의미적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전제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알면서도 무시한 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획득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한두 개의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타인의 이론에 대한 배타적, 배중률적 단언적 판단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심리학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의식하건 안하건 간에, 그들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전제하고 가정되어지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절에서는 경험적 자료 획득과 해석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 전제와 가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가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겠다. 그런 후에 다음 절에서 심리학 연구에서 적용한 전통적 과학관이 지니고 있는 전제와 가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통념적 과학관의 특성과 그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 2.1. 존재론적 가정

과학에서의 존재론적 물음은 대상의 실재성의 문제, 주체와 객체의 문제, 그리고 과학이론에서의 적절한 이론적 용어란 무엇이며 그들이 지칭하는 실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는가 하는 물음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연구 대상인 자연현상이 실재하는냐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철학에서 주관적 회의론자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보며, 자연현상이 실재하는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회의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회의론보다는 자연현상이 실재함을 가정하는 실재론 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과학자들은 자연현상

이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며 균일한(uniform) 현상으로서 일어나느냐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의 본질이 이해인가, 설명인가 아니면 記述인가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과학적 탐구의 본질이 설명이라면 수 많은 설명이론들 중에서 어떤 설명이론을 택하며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만일 선택한 과학적 설명이론이 Hempel 식의 '연역적-인과율적 설명이론'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근거와 그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전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과율적 설명이론을 택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 유형들 중에서 자연현상이 어떤 인과적 유형을 따르느냐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과 유형을 네 개로 나누었다. 이 네 개의 인과 원인들 - 질료인(質料因, material cause), 형상인(形象因, formal cause), 동인(動因, 作用因, efficient cause), 목적인(目的因, 終局因, final cause) - 중의 어떤 인과 원인(들)에 의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한다. 전통적 과학관에서는 질료인과 동인을 중심으로 자연현상의 기계적 결정론을 제기하였고 목적인은 배제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글의 뒤에서도 논의 되겠지만 인간의 심리 현상, 특히 심리적 현상들을 인간의 행위로 간주하게 될 때 목적과 의도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Rychlak, 1981, 1988, Greenwood, 1989).

과학에서는 또한 자연현상과 그 법칙이 인간 경험을 통해 드러내어 질 수 있음(가현성, 可顯性) 가정해야 한다. 즉, 자연현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끊임 없이 변화하지만 그 배경에 놓여 있는 법칙의 본질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밝혀 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현상이 언어와 상징들으로써 표상화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기술, 설명될 수 있으며, 또 자연현상이 수량화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론적 가정들 또는 전제들은 인과적 기제에 대한 가정 이외에는 대체로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제해야 할 것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다. 과학적 지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와 그 대상이 되는 객체인 자연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과학자는 어떤 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통적 과학이론에서는 과학적 연구에서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이전의 철학자들도 의의를 제기하였지만 근자에는 인지적 과학철학자들과,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새 사조들에 의하여, 구분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에 가정되어야 할 것은 각종 과학적 개념들이 지칭하는 것의 실재성에 대한 가정이다. 과학의 이론적 명제에서 기술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개념(예를 들어 심리학에서의 '자아', '지능', '성격', '표상' 등의 개념들) 또는 명제가 어떤 외적인 객관적 실체를 지칭하는가 아니면 실체를 넘어서는 순수한 추상적 가설적 구성 개념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한 가정이다. 이는 언어 의미론의 문제이며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가정들은 2.3절에서 다루겠다.

## 2.2. 인식론적 가정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 활동이란 지식을 체계화하는 인간의 인지적 작업이

다. 이 작업에는 자연히 이러한 작업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인지적 활동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두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 각각의 본질에 대하여 전제되고 가정되어야 하는 명제들이 있다.

먼저 인간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식의 형성과 체계화의 심리적 기제인 인간 인지 기능의 신뢰로움과 합리성에 대하여 긍정 아니면 부정의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곧 인지가 '자연에 대한 거울(mirror of nature)'(Rorty, 1979)로서, 감각적, 지각적 경험을 통해 자연을 수동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는 실체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이론(지식, 마음)과 독립된 순수하고 객관적인 자료(경험, 자연)가 실재하는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간 이성에 의해 이론이 확실성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가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관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험적 '증거'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Fassnacht(1982)에 의하면 관찰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관찰이란 본질적으로 현실을 표상하는 한 양식이며, 관찰이라는 행위에는 여러 수준의 활동과 관찰 체계가 개입되며, 여러 수준에서 선택적 결정이 필수적이다. 관찰 단위라던가, 관찰 체계 등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개입되는 복잡한 행위이다. 따라서 한 과학자는 자신이 행하려는 관찰이 어떠한 관찰인가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증거라는 개념도 단순하지 않다. 증거라는 개념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Schum(1994)은 증거라는 개념의 메타이론적 분석을 통해, 증거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증거의 실체와 내용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증거에는 적절성, 신빙성, 추론적 힘(power)이 항상 수반되며 이러한 특성은 논리실증주의 경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자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거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었을 경우와 다른 증거들과 조합되어 제시되었을 때에 다른 추론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증거라는 개념은 추상화, 정보, 지식, 수사학, 논리 등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의미를 지니며, 추론과 정당화의 개념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거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자연히, 경험적 자료에서부터 이론으로,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귀납적 추론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합리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과연 과학적 추론에서 적용되는 연역적, 귀납적인 논리적 사고란 無오류적이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닌 사고인가, 인간 이성은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이며 과학자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의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의하여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해야 한다. 자연을 감각, 지각하여 경험으로서 수용하는 인간 능력과, 이러한 수용된 경험을 정보화, 지식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기억의 신뢰로움에 대한 가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이 각종 경험적 정보들의 관계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각종 개념적 지식,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사건 및 대상에 대한 지식, 각종 정보처리 절차에 대한 지식 등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식표상이 그 대응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면에서 자연 현실과 부합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의 인간 인지 능력은 여러 가지 제한성과 유보성이 있다(Eysenck &

Keane, 1990; Haberlandt, 1994). 자극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판단과 추리에 있어서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개인의 신념, 의도, 및 목표가 인지과정에 개입되어 인지 내용을 변형시킨다든지, 정보처리의 성공 여부와 효율성을 결정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기타의 여러 가지 인지적 제한성이 초래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제한성 또는 유보성이 극복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즉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자연현상의 본질을 반영하고 또 이를 지식화하는 과정들에 정확성과 합리성이 있고, 따라서 합리성 있고 항상성이 있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지식이 인간 상호간에 서로 공유될 수 있으며, 본질적 왜곡이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함과 그러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공동체적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존재함을 가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학적 지식이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과학적 지식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해야 한다. 이는 언어 의미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에 논의하겠다.

### 2.3. 개념적, 언어적 의미에 대한 가정

과학적 작업은 언어를 통하여 개념화하고, 사고하며, 이를 의사소통 가능한 외현적 지식체계로 표상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적 의미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과학적 작업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개념들 또는 명제적 진술들이 어떠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가, 그들은 과연 자연의 실체를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칭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 하나의 가설적인 추상적 구성에 지나지 않는가, 언어적 개념이나 명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주관적으로 감각, 경험할 수 있는 대상과의 연결에 의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의미를 갖게될 수 있는가, 경험자, 인지가 독립적으로 부여한 의미가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가, 언어는 공동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가, 아니면 감각적 경험에 의해 확실한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 없이도 개인적으로 객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여 과학적 지식의 내용과 과학적 언명이 지칭하는 바가 어느 정도나 실제의 자연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참 보고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또 그와 반대로 과학적 지식의 내용과 그 지칭이 어느 정도나 인간의 지적인 구성 또는 인위적 사실임을 반영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 또는 이론의 인식론적 지위에 관하여는 세 가지 주요 입장들이 있다. 한 극단에서는 실재론자들의 입장으로, 실재론자들은 모든 과학적 지식이 사실에 기초함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적 기초가 과학의 모든 주요 명제들에 대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인 논리적 수반성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특정한 관찰의 보고에서부터 가장 보편적인 이론적 원칙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모든 명제 하나 하나가 자연에 대한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경험적 사실의 집합을 보고하는 것이며 그러한 명제들은 그것이(진술하는 바) 보편적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거울이 된다고 전제한다. 이 입장은 모든 과학이론의 주요 기술적 용어들을 인간의 이론이나 해석과는 독립적으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객체, 실체의 이름으로 간주한다. 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엔트로피, 자아, 표상, 성격, 지능 등의 개념이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다른 극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정 과학의 이론적 개념들은 과학적 이론이 설명하려는 현상, 체계, 대상 등의 자연계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본다. 과학의 지적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념들이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다.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실체를 지칭하는가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은 이러한 이론적 시도가 낳은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과학자 자신의 이론적 구성의 역동을 바탕으로 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개념적 구조에 내장되어지는 논리적 필연성을 전제한다. 가장 순수한 관찰적 진술 이외의 모든 과학적 진술이 과학자 자신이 자연계에 대하여 지닌 자신의 개념적 추상적 구도 유형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 양극단의 중간 위치에 속하는 입장 중의 한 형태가 조작주의이다. 조작주의는 이론적 과학명제들이 실제의 과학적 작업에 있어서 특정한 조작적 절차를 지칭하는 한도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다. 그러한 조작적 의미 이상의 어떤 것도 과학적 지식에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실체로 간주되는 이론적 실체의 존재 여부에 관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의 낭비라고 본다. 과학의 개념과 용어들은 수많은 논리적, 의미론적 조작 또는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 산물이므로 그들의 현실적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미신과 같은 해로운 것으로 몰아 부치는 것일 수 있다. 한 과학자 또는 과학자 집단은 이 입장들 중의 어느 한 입장이건 간에 선택하여 이론적 개념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2.4. 기초학문 이론들에 대한 가정

과학적 연구는 몇 개의 단계적 과정들을 거쳐 진행된다. 먼저 자연현상들 중에 특정 현상을 선택하여 이를 범주화하고 이 현상에 대해 연구자 나름대로의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에 이 현상을 정형화된 실험법과 같은 체계적 관찰법을 적용하여 관찰한다. 관찰된 내용들에는 상징이 부여되고 관찰 결과가 수량화되며, 수량화된 결과를 수리적,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분석하고, 그 분석에 근거하여 연구 시초에 제기하였던 이론이나 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적(귀납적 논리에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다. 다음에 이러한 결정을 관찰된 현상 집합 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한다.

이러한 과정들의 세부를 분석해 보면 곳곳에 논리학, 통계학, 분류학, 의미론 등의 기초학문 이론들의 기본 개념과 가정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 기초학문에 대한 메타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이들 기초학문의 기본 개념들과 가정들에 문제가 있음이, 특히 그것들을 과학적 연구에 도입하는 논리들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 절차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학문 이론들의 개념들, 가정들이 정의 가능하며 타당함을 전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數)와 수학의 개념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클라인, 1984; 199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자들은 수나, 집합 개념 등의 개념적 기초가 확고하며, 당연히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거나, 이러한 메타이론적 문제를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리학의 개념적 기초에도 이론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전통적 논리학 이론들의 타당성과 논리학 이론들이 과학적 이론의 구성과 추론에 충분한 기초를 부여할 수 있음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고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치 등의 상징에 의미를 연결시키는 의미론 이론들의 타당성을 전제해야 하며, 개념과 사물의 범주적 분류 이론의 타당성을 가정해야 한다. 또한 대상과 대상에 대한 이론을 엄밀한 형식 체계에 의해 표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형식주의(formalism)의 타당성을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전제나 가정을 취한다면 과학적 탐구의 양식은 달라지게 된다.

통계적 추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초적 가정을 해야 한다(Keren, 1982; Keren & Lewis, 1993). 먼저 자연현상에 대하여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여 표상하는 현상이론의 타당성을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험체계를 수리체계로 변환하는 '측정(measurement)'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이 이루어지고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개념적 기초와 대안적인 여러 이론들(이순목, 1990)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타당성과 그 측정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Savage & Ehrlich, 1992). 또한 확률론의 개념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확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20여 개의 확률이론 중에서(Weatherford, 1982) '상대적 빈도의 극한값' 이론을 선택하여 모든 통계적 추론을 이에 근거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가정해야 한다. 이에 첨가하여 '통계학에서 가장 불만스런 분야'(Hacking, 1965)인 추정(estimation)이론들과 이중의 한 이론을 선택함의 타당성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과학적 가설을 검정하는 통계적 추리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전제들과 가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이정모, 1992: 4,5,9,18-24장). 과학적 가설을 검정하는 논리에 대한 여러 이론들의 타당성, 그리고 그 이론들 중의 어떤 이론을 택하여 그에 의지하여 추론하는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특히 영가설 검정(test)이론을 사용하여 심리학적 가설의 검정을 하는 것이 우리 심리학자들의 일반 관행인데, 영가설검정 이론에 대한 수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사용하는 정당성 논리를 나름대로 가정해야 한다(이정모, 1989). 또한 결정-판단이론들, 오차이론들 등의 개념적 기초의 확실성과 이들 이론들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가정해야 한다.

## 2.5. 과학의 합리성과 통일성에 대한 가정들

또한 과학이라는 체계가 합리적 체계인가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수많은 회의적 비판론들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개념과 이론의 변화와 발전이 합리적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전통적 관점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발견의 논리가 존재함과 과학적 이론이 자연현상에 대응되는 진리일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추론의 기본 논리인 귀납추론 논리가 정당함과, 과학적 설명이론들의 타당성과, 여러 대안적인 설명이론들 중에서 Hempel식의 설명이론을 선택하는(이정모, 1988b) 근거의 타당성과, 이론과 관찰자료의 구분 가능성과 수많은 관찰대상 중에서 특정 관찰대상에 대한 정보를 자료로 선정하는 과정의 논리와, 관찰 결과에서 자료들을 취사선택하며 재구성하는 논리의 합리성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과학적 연구방법이 존재함에 대한 가정과 과학적 연구방법의 전형인 실험법의 합리성과 충분성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 실제의 경험적 실험연구에서 연구자가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변인들은 관찰 현상에 참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즉 자신이 조작하거나 통제한 변인 이외의 모든 조건에서 집단들이 완벽히 동일함(ceteris paribus) 또는 완벽히 무선적임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또한 현상을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느냐 미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느냐처럼 설명수준에 따라 다른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 2.6. 연구 영역별 부가 가정들

학문에 따라서 또 그 학문내의 下位 영역에 따라서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가적 가정이 더 첨가된다. 심리학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심리학적 설명 원리, 심신관계론, 자아의 본질, 표상의 실재성,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와 같은 학문내의 연구 영역별로 특수한 부가 가정과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 2.7.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종합

이상에 진술된 여러 가지 가정들과 전제들을 묶어 그림으로 재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과, 앞서 진술된 여러 가지 가정들과 전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메타이론적으로 단순한 작업이 아님이 드러난다. 하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자신의 이론에 적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타당화한다는 것이 단정적인 결론과 절대적으로 참인 지식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증거란,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확실한 토대 위에서 엄밀한 객관성을 띤 것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은 수많은 분석되지도, 검증되지도, 입증되지도,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을 수 있는 전제와 가정들 그리고 기초개념들이 층층이 쌓인 위에서, 그리고 특정 과학 분야의 특정 이론 틀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향(bias)을 지닌 채 얻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과학적 연구에서 얻어진 경험적 자료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란 이러한 모든 가정들과 전제들이 잠정적으로 용인된 기반 위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가능한 여러 대안적 해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경험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배중률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단순한 소망적 믿음(belief)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 해석, 및 이론에의 연결과정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러한 전제와 가정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경험적 자료의 획득과정이 과학적 연구의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이디어 형성에서부터 일반화의 마지막 단계까지의 수많은 단계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과학적 방법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과학이론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심리학이 지난 1세기 동안 적용해 온 전통적 과학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많은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깊은 이해나 논의가 결여된 채, 너무 단순한 과학이론을 상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3.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sup>2)</sup>의 특성과 문제점

### 3.1.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특성

2). '전통적' 과학이론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20세기 초에 도입하여 계속 적용하여 온 '통념적 과학관(Received View)'(Suppe, 1977)을, 즉 초기 논리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지칭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현재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전통적 과학이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초기 논리실증주의적 철학관이 비판되고 개선되어 새로운 전통적 과학이론이 형성되었으나, 심리학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초기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이론을 전통적, 통념적 과학관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에서도 의사소통의 편의상 이따금 여기에서 사용한 의미로 '전통적' 과학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의 '전통적' 과학이론과 '새로운' 과학이론 각각의 기본 주장과 그 차이점이 신중섭 교수의 논문(1994)의 각주 3)에서 간략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다.

심리학에서의 과학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초기 논리실증주의로 대표되는 통념적 과학관에 기초하고 이를 다소 수정한 형태의 과학이론이다. 흔히 경험주의 또는 객관주의라고도 명칭이 붙여지는데 이 과학이론은 심리학에서 그 틀을 확립시킨 행동주의 심리학이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 인지 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 여러 분야에 걸쳐 아직도 심리학 연구의 일반적 규범적 틀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관이 지니는 특성들을 개념적 수준에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과학이론은 데칼트적 존재론과 인식론을 지닌다. 데칼트적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과 이것을 경험,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二分法的으로 구분한다. 즉, 인식 경험의 주체와 객체가 별개의 실체들로서 분리된다. 이러한 존재론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현상내의 대상들을 인간이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하여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론에서 데칼트적 인식론은 이러한 존재론 위에서 토대론(원리론: foundationalism), 객관주의, 또는 경험주의로 불리는 인식론으로 나타났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절대적이며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며, 합리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진리가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지식은 감각적 경험요소에서부터 주어지며 따라서 어떤 지식이 참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감각 경험요소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지식들은 독립적 낱개 지식 요소들로 분해 가능하며, 어떤 종합적 지식은 그 부분 요소들의 합성에 의해 구성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객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경험의 내용은 심적 내용인 지식으로 표상되며, 지식을 구성하는 인간의 마음은 자연을 거울처럼 반영하여('mirror of nature') 표상하는 수동적 실체이다. 경험적 자료는 그것을 형성하는 마음과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따라서 이 객관적 경험적 자료가 인지자인 인간의 마음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획득된 지식은 간주관성(間主觀性)이 있고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 객관성이 보장되며 이를 논리적 규칙에 의해 일반화하기에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전통적 과학관은 또한 자연의 모든 현상이 기계적 결정론적 인과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네 개의 인과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인과 유형 중에서 전통적 과학이론은 기계적 법칙의 원인에 해당하는 동인(動因)을 취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심적 현상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인에 의해서 현상을 설명해야 하고 또 설명될 수도 있음을 배제한 것이다.

다음에 전통적 관점은 언어적 개념의 의미가 경험자와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또 부여될 수 있다는 것과, 의미란 경험요소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직접적 또는 간주관적으로 감각 경험할 수 있는 대상과의 연결에 의해 언어의 객관적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본다. 따라서 언어적 의미란 상황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 내적으로 충분한 언어적 의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좁은 의미의 방법론에 대하여는, 과학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택해야 할 것인가는 이성적 분석과 추론에 의해 그 규범적 규칙이 주어진다라고 보고, 가치와 이념과 독립된 논리적이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단일한 규범적, 과학적 방법론이 존재하며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지식을 정당화하고 체계화하여 참 지식을 축적하는 합리성이 과학에 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론은 모든 자연현상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기에, 연구 대상이나 학문 분야 모두에 공통적인 통일된 과학적 방법론(unity of science)이 존재

한다고 본다. 물리학의 방법론을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전형으로 보고, 이 방법론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심리학에서도 심리현상 자체의 독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물리 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인과론에 의해 심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별개의 방법론을 적용할 당위성이 없으며 물리과학의 경험적 방법론을 심리현상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론과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는 전통적 과학관은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자료는 경험적이고 일차적이며, 이론이나 개념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경험적 자료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론은 이차적이며 종국적으로 경험적 자료의 조직화에 의거한 용어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학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경험적 자료의 획득과 조직화에 있지 이론의 발전에 있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자료의 객관적 기술(記述)이 과학에서 주가 되어야 하고, 이론에 의한 설명은 배격되거나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한다고 본다.

### 3.2.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문제점

이러한 전통적(통념적) 과학이론의 전제와 가정들 그리고 실제의 과학적 활동의 수행 등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 관찰에서 출발한다는 토대론적 인식론과, 관찰과 이론의 구별, 그리고 귀납적 추론이 과학적 이론의 타당성을 정당화 해준다는 귀납적 추리의 문제이다.

과학은 순수한 경험적 관찰에 의해 시작되고 순수한 경험적 관찰이 과학적 지식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단순화된 인식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철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과학철학자 Duhem, Quine, Kuhn, Toulmin 및 Hanson 등은 경험적 관찰은 이론 의존적(theory-laden)임을 지적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관찰과 이론은 이분법적으로 무관계적 실체들로 나눌 수 없다. 첫째로 모든 관찰은 수많은 관찰 가능한 후보 대상 가운데 특정 대상을 선택함을 전제로 한다. 이 선택이란 그 대상이 과학자가 검증하려는 가설 또는 이론에 유관하고 적절하다는 판단 위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형화된 객관적 준거란 없다. 관찰하려는 과학자 및 그가 속한 과학자 공동체가 지닌 지식체계, 신념, 이론, 관습 등에 의해 이 준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찰대상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관찰대상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관찰을 실시함에 앞서서 그 대상과 그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범주화의 문제이며 범주화란 Wittgenstein(1953)이나 Rosch(1973)의 주장처럼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적 분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예: 친족 유사성), 많은 개념들은 범주화를 위한 객관적인 정의적 기준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찰대상의 범주화에는 관찰자 또는 관찰자가 속하는 사회의 이론 또는 신념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또한 관찰을 근거로 이론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실제로는 검정(test)을 의미한다)을 하려 할 때 그 관찰은 하나의 언명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언명이란 필연적으로 어떤 이론의 언어로 진술되게 마련이며 거기에는 앞서 2.3절에서 고찰하였듯이 잘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가정과 전제가 내포되게 된다. 통념적 과학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관찰과 이론을 명백히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했으나 그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개념화이었음이 앞서 기술한 과학의 전제와 가정들의 논의에서 드러났다. 모든 관찰 언명에는 이론이 전제되어 있고 이론적 틀, 그리고 여러 내포된 가정들과 전제들이 관찰되어질 바와 실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제된 이론이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면 관찰 내지는 관찰 언명이 오류를 지니게 된다. 동시에 관찰을 근거로 특정 이론의 타당

성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특정 이론 이외의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여러 부가적 가정들이 연구자가 수행한 관찰과 자료 분석 및 일반화 과정 속에 전제되어 있기에 그 검증이란 그 특정 이론의 순수한 검증이기 어렵다.

더우기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더 확고히 입증하기 위해서 더 광범한 관찰을 획득하면 된다지만, 하나의 관찰 연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찰 연명과 이론적 일반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론에 대한 더 확고한 타당성의 입증이란 더 광범한 이론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요약하여 말하면, 순수한 경험적 관찰이란 없으며, 모든 경험이 과학자의 이론적 틀과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설사 경험적 관찰이 순수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연명으로 진술되어야 하는데 이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며 언어적 표현은 진술자의 주관적 이론적, 개념적 지식과 의도와 목표에 의존하게 마련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험적 관찰과 이론을 상호 독립적인 것이며, 이론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도, 관찰은 오류일 수 없기에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그 확실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한 '과학의 통념관'은 관찰과 이론이 상호의존적이란 면과 관찰도 가류적(可謬的)임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가의 딜레마란 문제가 제기된다. 통념적 과학이론에 의하면 모든 이론적 연명의 내용은 경험적 요소로 환언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적 관찰에 기초하지 않은 개념적 요소들을 이론적 연명에 도입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물리주의, 환원주의적 원칙은 결국 이론, 설명, 과학적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모순에 도달하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경험적 관찰 요소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이론적 연명이란 실상 경험적 자료의 나열 이외의 아무런 부가적 의미도 제시해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과학적 작업의 본질인 설명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과학이론은 이러한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귀납적 정당화의 문제이다(이정모, 1988c). 통념관은 과학적 이론이 귀납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가 되며 확실성을(적어도 개연적 확실성이라도) 부여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귀납적 추론의 문제점이 Hume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명백히 제기되었다. 아무리 한 이론의 전제 부분이 참이며, 시점 t에서 관찰된 사례 n에 따른 결론이 참이더라도 시점 t+1에서 관찰된 결과는 거짓일 수 있다. 설사 확률적으로 귀납적 추론을 한다 하더라도 N번의 관찰에 의해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 k를 얻어 이를 k/N의 확률로 표현하려 하지만 사실 그 사건의 참 확률은(이 이론이 참이 아닐 경우에는) 사례수가 무한히 커질 경우에  $p=(k/\text{무한})$ 로 결국 0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어 무의미하게 된다. 경험적으로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를 "다양한 상황" 아래서 "충분히 많은 관찰"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률은 별 의의가(절대적으로 판단하여) 없으며, 또한 "다양한"과 "충분히 많은"이 "얼마나 다양해야", "얼마나 많아야" 충분히 다양하고 많은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순환론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귀납적 추론의 정당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화의 문제를 위와 같이 확률론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고 귀납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회의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주어진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미래로 투사(projection)하는 것으로 재개념화 할 수도 있다(Goodman, 1986). 또한 귀납추론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논지도 전개할 수 있다(Stove, 1986). 다른 한 방안은 과학이 귀납적 추론에 근거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귀납적 정당화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철학자들의 딜레마들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그 동안에 심리학이 바탕을 두어 온 통념적-전통적 과학관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과학적 심리학을 표방하며 도입한 과학의 틀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초기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한 과학관을 비판 없이, 그리고 세부적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분석 없이 받아 들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그러한 과학이론에 대해 과학철학에서는 이미 심각한 비판들이 제기되어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또 심리학이 모방하려는 물리학에서조차도 이미 버려진 그러한 과학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의 대부분은 과학 일반과 심리학의 과학적 탐구의 바탕에 놓여 있는 기초개념들과 기본 가정들과 전제들을 무시한 채, 또는 엄밀한 분석을 가하지 않은 채, 통념적 과학이론의 원칙에 따라서, 관찰된 자료를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숫자만을 근거로 자신의 이론을 단언적으로 지지하는 후건긍정(後件肯定 또는 確認偏向; confirmation bias)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 반증하는 사례와 대안적 이론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검정(test)하려는 확인 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들이 무엇을 행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학자들의 과학적 작업, 즉 과학적 행위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Faust, 1984). 과학적 작업의 대상들이 지니는 가변성과 정보의 다양성, 복잡성, 그리고 과학적 추론과 판단을 하는 과학자의 인지적 행위의 복잡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 과학자들의 인지적 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는 과학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통념적 과학이론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 논의는 아직 철학자들의 사변적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과학관이 그렇게도 강조하였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경험적 자료에 의해, 경험적 증거에 의해 논증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통념적 과학이론을, 바로 그 과학이론의 논리를 빌어,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결정적 타격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과학이론에 주는 의의이다.*

#### 4. 심리학적 연구가 과학이론에 주는 의의

전통적 과학이론에서는 철학자가 과학의 사제가 되어 과학 밖에서 과학이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을 처방적으로 제시하였었다. 그런데 과학적 행위의 본질은 지식의 체계화라는 인지적 행위이다. 따라서 인지 행위를 연구 주제로 삼는 심리학, 특히 인지심리학과 인지사회심리학이 과학적 행위, 지식의 체계화,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에 대해 그 인식론적 바탕을,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분석하며, 비판하고 논의할 수 있다.

메타이론적으로도 인지심리학과 인지사회심리학은 그 접근 자체가 감각 경험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인지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심적 현상을 하나의 신경생리적 수준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의 설명도 인정하나, 상위 수준의 설명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인정하는 다원적 설명 수준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통적 경험주의의 실험검증적 방법뿐만 아니라 합리적(rational) 방법과 경험적(empirical) 방법을 결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 및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등과 같은 질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통적 과학이론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접근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 과학이론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지주의 심리학은 전통적 과학이론을 대표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대두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과학이론의 기본 가정들의 일부를 거부한다. 토대론(foundationalism)적 인식론 즉, 감각주의적 인식론과 수동적 거울로서의 마음관, 단일 수준적 기술 또는 단일 수준적 설명 접근, 자료와 이론의 독립성 등의 전통적 과학관의 가정들을 인지주의 심리학은 메타이론적 측면에서 반대한다. 신칸트학파적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 인지심리학은 감각 경험요소로 환원시킬 수 없는 선형적, 경험적 지식을 인정하며, 각종 경험의 내용은 자연의 수동적 반영체로서의 마음이 아닌 능동적이고 활동적 구성(active construction)으로서의 마음이 이루어 내는 것이며, 모든 현상에 단일 설명 수준의 분석 접근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복잡성 및 질적 수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설명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험적 자료가 이론에 의존적이며 이론이 경험적 자료와 별개의 기능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컴퓨터 유추의 도입은 어떠한 개념의 의미나 현상의 설명이 감각적 요소에 의해 주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유적, 개념적 틀에 의해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인지사회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사회적 산물이어서 사고를 비롯한 인간의 심적 활동과 외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구성, 제약, 결정되는 것임을 설득력있게 제기하였다(Greenwood, 1989; Resnick, Levine, & Teasley, 1991; Harre, 1993). 우리의 심리적 실재가 그리고 그 의미가 사회와 문화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 언어에 의해 드러내어지는 것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주의 심리학의 틀 자체의 메타이론적 의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지주의 심리학 연구의 경험적 연구가 전통적 인식론, 합리성관, 설명이론에 주는 의의이다. 인지주의적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Eysenck & Keane, 1990; Haberlandt, 1994)이 인식론과 합리성관, 설명이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전통적 인식론에 주는 의의

먼저 외적 자극의 지각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착시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지각의 오류 등의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지각 내용이 구성(construct)된다는 것, 지각자의 지식과 동기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추론과정이 개입된다는 것을 보였다(Coren, Ward, & Enns, 1994). 특히 형태지각 연구들은 전통적 과학관에서 외적 자극의 단순한 복사적 인식으로 보았던 형태지각 과정도 복잡한 여러 단계 과정들의 복합이며, 대상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정확한 표상은 찾기 곤란하며, 동일한 범주에 속한 자극들의 공통적 속성들이 수리적으로 계산되어 평균화되어 추상화 된 표상이 형태지각에 관여되는 표상의 특징임을 보였다. 또한 형태지각 단계에도 이미 고차 정신과정의 처리 체계인 의미체계와 언어체계가 함께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지각과정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감각적 경험 자료의 내용이 물리적 대상의 단순한 일대일적 대응 복사 표상이 아님을 보였고 이는 감각주의적, 토대론적 인식론에 기초한 과학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주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순간 순간마다 천문학적 양의 엄청난 정보를 접하지만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들의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주의를 안한 채널의 정보도 특정 맥락 의미의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는 처리가 된다는 것은 경험적 자극의 선택과정에 이미 맥락적 주의가 개입됨을 예시해 준다. 또한 주의 배분 량의 제한성에 따라 우리가 주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한



계가 주어진다라는 결과는 우리가 감각 경험 자극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상한다는 ‘자연의 거울’로서의 심적 표상 또는 지식을 강조한 데칼트적 인식론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억 과정의 연구들을 개괄해 보면, 전통적 과학이론 또는 과학적 방법론이 상정했던 바, 즉 자극 자체를 그대로 충실히 입력-수용하는 것이 인간 기억이라는 기억관, 또는 단순히 밀랍과 같은 기억 매체에 감각적 인상을 각인하여 기억흔적을 남기거나 사진 복사와 같은 기억 흔적을 상정하는 관점은 너무 단순했음이 드러난다. 수많은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입력정보를 계산, 추상화, 삭제, 재구성, 전환(Murdock(1982)에서 제시된 행렬구조의 전환과 대응 등을 포함한) 하는 과정들이 포함되며, 개인의 지식의 요소가 깊숙이 상당히 넓은 범위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이정모, 이재호, 1994). 감각기억에서 자극의 감각적 특질이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약 0.4 내지 1.0 초) 유지되나, 감각像이 부분적으로 특질 중심으로 급격히 사라지며 감각기억에 유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감각정보가 그대로 저장되기보다는 단기 기억과정을 통해 언어적, 청각적 정보형태로 바뀌고 또 장기기억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감각정보가 추상화된 의미 형태의 정보로 바뀐다는 것은, 감각경험을 통해 입력된 자극 정보가 자극 자체 정보의 충실한 반영으로 남아서 지식의 기초를 이룬다는 감각적 인식론에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단기기억의 처리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되뇌임 없이는 계속하여 정보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특성도 마찬가지로 기억의 불충실성을 보여준다. 장기기억과 관련된 현상들은 전통적 관점의 제한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처리 깊이(depth of processing; Craik & Lockhart, 1972)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자극 정보에 대한 정교화(elaboration) 과정이 항상 개입되고 여기서 개인의 지식이 더욱 개입된다는 점, 자극을 받아들일 때의 상황조건 단서들과 기억을 해낼 때의 상황조건 단서들의 부합 정도에 의하여 목표 정보가 재구성-인출될 성공가능성이 결정된다는 부호화 특수성 이론(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Tulving & Thompson, 1973), 회상과 재인(recognition)이 과연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과정이나 하는 회상-재인 기억의 구별 문제와 함께, 재인까지도 자동적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처리와 통계적 결정 계산이 개입되는 인출과정이라는 실험 결과 등도 전통적 관점의 단순한 인식론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전통적 인식론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은 F.C. Bartlett(1932) 전통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이다. 그들은 기억은 본질적으로 구성적임을, 즉 자극을 받아들여 부호화하여 저장할 때도 또 인출하여 낼 때도 자신의 지식, 태도 등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기억이 구성적 과정이라면 감각자료의 확실성, 신뢰성이나 자명한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 또는 순수한 객관적 추론의 가능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기억 내의 표상 구조와 표상의 양식 또는 유형에 관한 연구도 전통적 과학적 방법론이 취한 인식론에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전통적 과학관은 경험적 감각자료와 언어적 이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억 표상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감각 경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억표상이라고 믿어 온 심상(imagery)이 과연 일반 언어적(명제적) 표상과는 별개의 표상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Pylyshyn 등은 심상이 ‘인지적으로 삼투가능함(cognitively penetrable)’을 주장하며 심상조차도 본질적으로 명제적 표상임을 주장하였다(Pylyshyn, 1981). 설사 Pylyshyn 등의 비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심상표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인지심리학자들조차도 전통적 과학관이 상정하고 있는 그러한 식의 자극 복사적 심상표상 관점을 더 이상 지니고 있지는 않다. 여러 단계의 계산과정을 거쳐 자극 특성 자체로부터 추상화되고 변형된 형태의 심상표상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대두된 자료

주도적 이론 모형인 분산표상 모형도(Rumelhart, McClelland, & LNR Group, 1986) 단순한 일대일 식의 감각특성 표상의 모델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과학관이 상정하였던 바인, 자극의 감각특질을 일대일로 그대로 복사한 경험적 자료로서의 심상(心象)이란 것은 심적 표상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자료에 충실하게 대응되는 심상표상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의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지식이 과연 어떤 형태로 표상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 과학관에서는 지식이란 명확히 그 범주를 가릴 수 있는 개념들과 이들의 조합인 명제들이 정의적 특성 중심으로 논리적 범주 분류체계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낱개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개인의 마음 안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며 정의적 명제들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종래의 생각이 너무나 단순했음을 보여주었다. 첫째로 개념을 규정하는 범주라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명료히 정의되어 그 경계를 제시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범주와 범주의 경계가 애매하며, 정의에 의하여 범주와 개념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 원형과의 친족유사성에 의해 범주가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Rosch, 1973). 한 범주 개념의 의미가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개념들과의 총체적 관계(Gestalt)에 의해 주어짐과, 종국적으로 범주적 개념의 의미는 고립된 개인 내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동의에 의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의존적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Barsalou, 1992).

언어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는 전통적 과학관이 제시한 인식론의 단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전통적 관점은 언어 의미의 이해를 단순히 정의적으로 규정된 낱개 개념들의 의미를 종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언어적 또는 명제적 형태로 남아 있는 지식은 정의적이며, 객관적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감각경험적 요소에 기초한 개념인 한 간주관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적 연구는 언어적 의미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기억과 마찬가지로 구성 과정에 의하여 각종의 지식을 동원한 추론과 해석의 결과이며 발화자(저자)와 청자(독자)사이에는 주고받는 의미의 대체적 부합(partial match)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였다. 언어 이해가 글 자체의 단어나 문장들의 외현적 의미 내용에 의해 일대일로 대응되는 복합적 의미 표상의 형성이 아니라 주어진 바의 명시적 의미를 넘어서며(going beyond the given), 언어적 자극은 독자 또는 청자가 어떠한 정보처리를 할 것인가에 의한 프로그램 또는 단서나 지침에 불과하며, 실제 이해된 내용이란 이러한 외현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넘어서서 상황맥락적 정보에 대한 심리적 의미 모형(mental models)이 형성된 위에서 각종 추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다듬어 점진적으로 세련화시킨 해석된 표상 내용이며, 그것의 의미는 사회적, 화용적 맥락에 의하여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임이 지적되었다(van Dijk & Kintsch, 1983). 특히 언어자극의 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기억된 내용이 언어자극 그 자체의 외형적 또는 단순 요소적 의미 내용이 아니라 의미적 요지(gist)이며, 이해자가 동원한 지식에 의해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형된 내용임을 보여주었다(Bartlett, 193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학적 연구에서 <1> 경험적 자료가 언어적으로 이론화되는 과정과, <2> 언어화된 이론의 의미 소통 과정과, <3> 지식으로 체계화 되는 과정들 각각에서 전통적으로 전제하였던 언어적 의미의 객관성, 합리성, 독립성, 불변성 등에 대한 상정과, 명제들의 순수한 외현적 의미가 자동적으로 이해되어 표상이 형성된다는 상정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보였다.

형태지각, 기억, 언어 등의 연구들이 전통적 과학이론과 인식론이 전개하였던 감각

경험 자료의 신뢰성과 이에 기초한 언어적 명제 또는 개념적 표현의 의미의 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면, 사고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理性的의 합리성과 논리적 추리의 규칙성, 지식의 정당화 추론의 자동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로 단순히 자연의 수동적 거울로서의 인식을 가정했던 인식론이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 문제는 다음의 합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 4.2.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의의

### 4.2.1. 합리성 개념의 제 문제

전통적 과학이론이 근간으로 삼았던 인간 이성의 합리성, 과학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근거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라는 명제가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 학문들에서 전통적으로 지녀 온 입장이다. 전통적 철학에서,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인식론을 전개하였고 또 사고의 논리 규칙들을 도출하였다. 합리론의 일반적인 입장은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대해 추상적 표상을 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 구조에 맞는 규칙들을 적용하여 사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논리적 규칙에 맞지 않는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들이며, 인간의 이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합리적 본질에서 벗어난 비규준적이며 오류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심리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간의 사고의 본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원리나 이론이 없었던 심리학은 철학에서 제시한 합리론적 관점과 논리학에서 이루어 놓은 논리적 규칙 중심의 연역적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전개하였다. 인지심리학이 형성되기 이전과 인지심리학이 형성된 이후의 초기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범주적 사고에서 논리적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범주의 판단 또는 범주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와, 연역적 명제에 대한 논리적 추론이 삼단논법적 추론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 사유의 합리성을 당연시한 위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철학에서 인간 이성의 합리성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에 일반 사회과학에서도 인간 이성의 합리성 관이 기초를 이루어 왔다. 인간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제도나 정책 등을 다루는 학문들에서도 합리성 관점이 그 바탕이 되어 왔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에서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행동한다는 전제 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이론에 바탕하여 현실적인 제도, 정책들이 입안되어 실시되어 왔다. 이들 학문들에서, 그리고 일반 민속적 심리학에서, 인간의 감정은 비합리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한,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함이 당연시되어 왔다. 즉 인간의 사고의 오류를 Freud처럼 감정이나 동기의 개입 등의 요인에 귀인시키는 입장이 지배해 왔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비합리적 사고나 행동은,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요소 같은 비이성적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최적인 그리고 타당한 행동이며 사고인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교정 내지는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해 왔다.

이러한 합리성 관점이 인지과학의 발전에 따라 심각하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인지과학적 연구, 특히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은, “감정의 개입 때문에 인간 이성이 비합리

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성, 그 자체는 (전적으로)합리적이다” 라는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감정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특성이 비합리적이 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합리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유형이라고 보았고 명제들 사이에 단순히 논리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논리적 사고, 특히 연역적 사고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다원적인 심리적, 정보처리적 과정들의 복합 메커니즘인가?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들 그리고 다른 인지 과정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합리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만일 인간의 이성이, 마음이, 합리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심각하게 다시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물음의 상당수는 철학 내에서 원래부터 제기되었던 물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을 최근에 심각하게 다시 제기하게 된 것은 주로 인지심리학 내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합리성 관점에 합치되지 않는 실험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시 해 왔던 합리성 관점에 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에 첨가하여 인지심리학자들과 같은 의견을 지닌 철학자들이 그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통적 합리성 관점은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 4.2.2. 합리성과 관련된 인지심리학의 경험적 연구의 내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전통적 합리성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인식론과 합리성의 개념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을 시사하며 또 과학적 지식의 본질, 그리고 이성의 원리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문제에 주는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진술한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언어의 연구가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 주는 의의를 요약하고, 다음에 합리성이 첨예하게 문제되는 추리, 결정, 선택 등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인간 이성의 합리성,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원리에 대한 관점이 그리고 과학이론이 어떻게 재개념화 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겠다.

##### <가>. 일반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

전통적 합리론은 마음이 자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전통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 관점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논하면서 인간이 주어진 상황이나 명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고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지, 주어진 상황 명제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성이나,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들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심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상 이해의 왜곡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은 인식론과 관련하여 상당히 논의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합리적 사고, 이성의 합리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언어적 명제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문제가 거의 없는 듯이 다루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즉 합리적 사고와 이해 또는 기억은 별개의 문제인 듯이 취급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언어 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접근, 즉 개념이나 명제들에 대한 이해와 기억의 문제를 배제한 채 인식론과 과학이론을 전개하던가, 사고의 합리성의 문제를 단순히 연역적 사고에서 논리적 규칙들의 적용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의 거울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구성체임을 인정한다. 즉 주어진 바 이상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것이 마음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상황 또는 언어적 명제에 대한 인

간의 이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합리론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의 문제를 논할 때에는 논리적 구조와 규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논하기에 앞서, 개념, 명제, 명제들 간의 관계성 등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의 문제를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인지심리학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서 제기된다.

#### <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의 시사점

형태지각, 기억, 언어 등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 인식론이 전개하였던 감각 경험 자료의 신빙성과 이에 기초한 언어적 명제 또는 개념적 표현 의미의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상정하는 단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따라서 언어적 표현의 이해가(특히 논리적 추론 명제들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며 단순한 과정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던 전통적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면, 사고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는 이성의 합리성과 논리적 추론의 규칙성, 지식의 정당화, 추론의 자동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사고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해결적 사고 과정, 추리 과정, 판단 및 결정 과정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문제해결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은 문제해결적 사고가 본질적으로 이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상황에 대한 전체적 심적 모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의해 문제해결적 사고의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이 결정되며, 어떠한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느냐에 의해 문제 자체의 개념화와 해결 방식의 탐색도 달라지며, 유추에 의존한 문제해결이 많고,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엘고리즘보다는 편법인 휴리스틱스에 의존함을 보였다(Mayers, 1992). 이는 명시적 내용에만 근거한 사고, 개인적 지식 특성에 의한 편향이 없이 논리적, 엘고리즘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이성적 문제해결적 사고를 상정했던 전통적 입장의 상정이 부적절함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특성은 연역적 사고 중심의 추리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더욱 단적으로 드러난다. 추리의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Evans, 1989; Baron, 1994). 가설에 관한 추리에서는 후건긍정, 전건긍정의 오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같은 과제라도 명제의 제시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 추론이 달라지며, 기억 단서에 따라 추리 내용이 좌우되며, 모든 경우에 보편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민감한 규칙들 또는 도식들을 적용하는 실용적 추리 원리가 적용되며, 전제 명제나 결론 명제의 이해 상의 오류, 주의나 작업기억의 제한성에 따른 오류가 드러나, 전통적 관점에서 생각했던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자동적인 논리 추리가 아님이 드러났다(Baron, 1994). 삼단논법 추리에서도 명제 자체의 의미만이 아닌 부가적인 의미를 동원하고 명제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황모형을 형성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추리하며(따라서 오류도 범하고) 상황모형 구성의 곤란성 여부와 모형의 수, 모형의 평가 정도 등에 의해 추리가 달리 결정됨을 보여 주었다(존슨레어드, 1991). 비록 상황모형에 기초한 추리에 있어서 추상적 규칙을 계산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적 모형 자체가 상황 의존적, 이해 의존적, 과거 지식과 초점 지식(주의의 전경(前景)에 떠오른 지식)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인지자의 지식과 심적 상태, 그리고 인지자의 정보처리 체계의 제한적 특성에 구애되지 않고 순수한 명제 자체의 명시적 의미에 근거한 연역적 추리를 관찰하기가 곤란함을 보여주었다(Baron,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이 심리학실험실이나 논리학 강의실에서 언어적 명제로 주어진 내용에 대하여 추리하는 것, 그리고 일상 상황에서 상황의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들을 선택하고 이를 명제화 하고, 명제화 한 내용에 대하여 추리하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 상정했던 그러한 순수한 오염되

지 않은 과정,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합리적 과정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귀납적 추리가 주로 개입되는 선택과정과 결정하기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합리성 관점에 주는 의의는 심대하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론이 상정하는 그러한 합리적 논리적 사고자가 아니다. 인간은 정보처리의 한계성을 지닌 채 정확성을 희생하면서라도, 또 비논리적 비합리적 편향을 도입하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적 정보처리를 추구하는 인지적 절약자이다(Nisbett & Ross, 1980).

합리성 관점이 상정하였던 바와는 달리 비논리적, 비합리적 특성을 보이는 선택과 결정 과정의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Baron, 1994). 먼저, 사람들은 판단, 선택, 결정 등의 사고 과정에서 주어진 언어적 명제들 또는 상황의 내용 그 자체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사전지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며, 흔히 기존지식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특정 자료 또는 자료의 특정 측면에 대한 부적절한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논리적 규칙인 앨고리즘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적 휴리스틱적 사고를 한다. 또 결과의 사전확률이나 기저확률(base rate), 표집의 크기 등에 대해 둔감하여 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며, 자연에서의 사건 발생 확률의 '통계적 회귀성(statistical regression)', 그리고 기회와 우연에 대해 현실의 특성과는 다른, 그릇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언 가능성을 무시하며, 주어진 정보의 신뢰성, 내적 일관성, 충분성에 상관 없이 그 정보와 자신이 기대한 결과와의 부합성에 의해 판단한다. 이러한 대표성 편법 이외에도 사례의 빈도라든가 기억으로부터의 그 특정 개념이나 사례를 탐색 및 인출하는 것이 용이한지의 여부에 근거해 판단하는 가용성(availability) 편법에 크게 의지하며, 동일한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시초에 제시된 출발점 또는 준거적 사례 값의 크기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며(anchoring effect), 접합적 사건의 확률은 과대 평가되며 이접적 사건의 확률은 과소 평가된다. 또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규준적 법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 결정한다는 규준적 이론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 확실성 하에서는 합리성 이론이 예언하듯이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한 합리적 계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측면이 부각되면 다른 한 측면을 망각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의 규칙( $A > B, B > C \rightarrow A > C$ )이 이행되지 않는다. 불확실 상황 하에서는 동일한 상황인데도 경우에 따라 확률의 과다 또는 과소 비중 부여 경향이 나타나고,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을 평가할 경우와 선택 결정을 할 경우에 서로 다른 것을 선호하며, 동일한 문제에 대한 결정도 그 문제를 어떠한 양식(맥락)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또한 미래의 일이나 가능성에 대한 과대 할인과 현재의 자아나 상황에 대한 과대 평가와 편향 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린다(Baron, 1994).

이러한 추리,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의 의의는, 삼단논법 추론을 비롯한 연역적 추리나, 귀납적 추리에서 논의되는 선택과 결정 과정들이 모두 오류가능성이 크며, 논리적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한 합리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Evans, 1993; Evans, Manktelow, & Over, 1993).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 합리적 사고가 대부분이고 비합리적 사고가 예외인 것이 아니라, 그 역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논리적 타당성 중심의 사고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던 지식에 근거한 비논리적 사고가 인간 사고의 특징의 하나임을 보이는 실험 예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다>. 믿을만함 대 논리적 타당성: 어느 것이 더 일차적인가?

Evans, Barston 및 Pollard(1983)는 다음과 같은 신념 편향에 대한 실험을 통해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그럴싸함 또는 믿을만함(believability)이 삼단논법적 형태의 추리

에서 판단의 일차적 기준일 가능성을 보였다.

Evans 등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개의 삼단논법 추리 문제를 제시하였다. 각 추리의 결론 명제는 1) 논리적 추리 규칙상 타당한 경우와 타당하지 않은 경우의 두 조건과, 동시에 2) 그 명제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여 볼 때 그럴싸한가(믿을만한 내용인가) 아닌가의 특성들이 들어가도록 조작하였다. 명제들을 약 80 단어의 이야기 또는 서술문에 두 전제 명제를 삽입하여 제시하고 나서 결론 명제를 주며, 이 결론 명제가 맞는가를 판단하게 하였다. 그들은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믿을만한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에서 획득된 반응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결론 명제를 타당한 결론이라고 반응한 백분율(% ) >

	믿을만한 경우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 조건	89	56
논리적으로 부당한 결론 조건	71	10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Evans(1989) 등은 다음과 같은 '선택적 훑어보기'라는 2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은

- 1) 일차적으로 결론의 믿을만함(believability)을 평가하고,
- 2a) 믿을만하면 삼단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 2b) 믿을만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삼단논법의 논리를 점검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않은 결론들의 내용만 선택적으로 그 논리적 구조를 세밀히 점검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피험자들이 추리 과정 중에 생각한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Oakhill과 Johnson-Laird(1985)도 다음과 같은 두 단계에 의해 피험자들이 연역적 추리를 한다고 보았다. 1단계에서 먼저 전제들(주어진 결론이 도출되게 하는)에 부합되는 심성모델을 형성하여 이 모델에 비추어 보아서 결론이 믿을 만하면 다음 2단계를 생략하고 결론을 수용한다. 만일 믿을만하지 않으면 전제들에 부합되지만 결론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심성모델을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반증 예가 있는가를 탐색,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념편향이 논리적 점검 이전에 일어나는 것임을 지지하는 결과도 다른 연구에 의해 얻어졌다.

신념편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비합리적 추리를 하며 '논리적 사고'는 '상황과 관련된 개인적 신념에 대한 평가적 사고'보다 이차적인 사고임을 밝히는 것이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전제와 결론의 정보에만 근거하여 추론하고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결론만 지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리를 생각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믿을만함(believability)과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지 못하고 피험자들은 비합리적 추리를 한 것이다.

#### 4.2.3. 인지심리학적 연구에 대한 해석: 논리적 합리성 대 실용적 합리성

그러면 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물음은 합리성이란 무엇인가의 물음과 인간 인지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되물음으로써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철학의 합리론자들이 이성과 사고를 논할 때에 일반적으로 취해 온 입장인 ‘논리적 기준 체계에 맞추어 사고하는 것, 참 신념을 산출하게 사고하는 것’의 의미로 다루어 왔다. 즉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거의 동일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합리성, 사고의 합리성의 개념을 이와는 달리 정의할 수 있음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철학자 Stich(1990)는 그의 저서 ‘이성의 편린화’에서,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문제를 논리적 합리성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인간은 진리적 명제만을 생각하는 인지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수많은 정보가 제시되는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이고, 바로 그러한 실용적 목적에서 인지체계가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Stich는 철학이나 사회과학에서의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절대적 참 가치가 있어서 논의되었다기 보다는 서양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전통의 소산일뿐이라고 본다. 그에 의하면 합리성의 논의 대신 인지체계의 본질을 논해야 한다. 그런데 인지체계의 본질은 논리적 분석적 접근에 의해, 인지체계가 논리적 합리성, 진리성을 주는 통정성 있는 체계이나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인지체계가 우리가 가치를 두는 어떤 것을 가져 올 것인가 하는 실용적 가치의 결과에 의해 논해야 한다. 이성인, 인지 체계라는 것이 주로 진리를 생성하는 기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보다는 인간이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또는 기술의 측면에서 인지체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지 체계에 대한 평가를 그러한 도구 또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그것이 풍부하고 다양한 부류의 가치인가에 의해 평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논리적 구조에 따른 진리 생성 여부, 즉 합리성은 유일한 가치, 또는 일차적이고 중심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논리적 형식규칙의 활용이 몸에 밴 현대의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인지체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반인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온 일반인들 중심으로 그들의 사고의 특성, 인지체계의 특성을 논해야 한다. 인간의 인지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발전된 기제이나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이 그저 인간의 사고가 합리적이냐 여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Stich가 이성의 합리성 개념 자체에 대해 반발한데 반하여 Dennett(1978, 1991)이나 Cherniak(1986)은 합리성의 개념은 살린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합리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의 합리성이란 이상적이며 완벽한 합리성의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너무나 이상화되어 있기에 실제의 인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합리성을 인간 인지와 관련하여 논한다는 것은 신화를 논하는 것이며 이는 참일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Cherniak은 '최소의 합리성(minimal rationality)'의 원리를 제기한다. 인간이 완벽한 연역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적절한 행위만,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모두 선택하며 논리적 구조에 맞는 모든 타당한 추리를 하는 것이(이상적 합리성) 아니라, 인간은 본래적인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제한된 연역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나 적절한 행위의 일부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최소한의 합리성) 것이다.

최근의 인지심리학자들도 Dennett, Cherniak 등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합리성의 개념을 유지하나 이들보다는 Stich처럼 실용적 입장을 더 강조한다고 하겠다. Evans(1993)와 Evans, Manktelow 및 Over(1993) 등은 사고와 관련된 합리성의 논쟁은 흔히 다음의 두 개의 다른 합리성 정의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합리성의 첫번째의 의미는 ‘목적의 합리성’이다. 이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합리성이다. 목적의 합리성은 실용적 적응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합리성이다. 합리성의 두번째 의



미는 ‘과정의 합리성’이다. 이는 형식 논리와 같은 적절한 규준적 체계에 맞게 사고하는 합리성이다. 곧 지금까지의 합리론자들이 주장해온 논리적 합리성이다. Evans 등은 인지의 연구자들이 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인지심리학 연구들에서,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첫번째 의미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연역적 추리 연구에서는 둘째 의미인 논리적 합리성 중심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었다고 본다. 그들은 인간의 인지체계는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체계가 아니라고 본다. 논리학자, 철학자들이 논하는 논리원리에 따른 합리적 사고나 종래의 인지심리실험에서 다룬 논리적 규칙 적용의 사고는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사고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실의 인간은 논리적이기 위하여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고한다. 따라서 인간은 주어진 언어적 명제나 주어진 상황의 명시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going beyond the given) 가능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현실 적응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활성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적응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고한다. 이러한 적응 행위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Cosmides, 1989) 상황명제에 대한 완벽한 계산이나 완벽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과 제한된 시간내에서,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보처리로서의 사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선택이나 결과를, 모든 가능한 논리 집합이나 논리 규칙의 적용을, 가능한 전범위에 걸쳐 동시에 정보처리하여, 논리적 합리성을 지키며, 환경 자극 정보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최대화하거나 최적화하여(maximizing, 또는 optimizing) 추론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합리성, 논리성, 규준적 최적성을 상실하고라도, 제약 내에서의 적응이 만족할만한(satisfying이라는 Simon(1983)의 개념처럼) 적절한 수준이라면 그러한 사고, 그러한 행위를 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하위 단원(module)들이 임의적, 무선적으로 구성이 된 위에 그저 논리적 규칙 체계가 부과된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란 유기체가 적자생존의 생존 경쟁에서 진화를 통해 효율적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에 어느정도 적합화된 그러한 구성체이다(Simon, 1983). 따라서 인간의 사고의 본질을 생각하려면 인간의 사고가, 인지가 그것이 어떤 실용적 적응의 목표에서 진화되었는가를 생각해야한다(Donald, 1991). Anderson(1990)이 주장하듯이 인간이란 유기체가 환경에의 적응을 적합화하기 위한 실용적 목표에서 인간의 인지가 진화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상적 사고의 기제가 실험실의 추리 문제나 논리학의 추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리적 신념을 획득하기 위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상에서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진화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Evans의 실험에서처럼 자신의 신념과 어긋날 때에만 선택적으로 자세히 추리한다는 것이 왜 적응적인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밑바탕에는 여러 신념들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들과 일치되는 증거들이 제시될 때에는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용적으로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기존 신념들을 수정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현재의 신념들에 대한 증거들을 끊임없이 회의한다는 것은 막대한 정보처리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증거나 논지들이 제시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신념체계에 모순이 생기며 내적 일관성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 4.2.4. 합리성에 대한 종합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일상적 사고는 논리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류 가능한 실용적 적응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그리고 Stich의 주장대로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서양의 문화에 의하여 생성된 관점으로서,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오류가능한(可謬的) 관점에 지나지 않다면, 인간 이성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형태로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인간의 마음을 전제하고 과학적 자료의 자동적인 이해, 과학적 가설의 설정, 과학적 이론의 형성, 과학적 이론의 정당화 추론을 과학이론의 근간으로 삼았던 전통적 과학이론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엄청난 지식의 체계화 이론인 과학이론이, 지식을 체계화하는 인간의 마음 곧 인지의 본질적 특성을 먼저 경험적으로 규명하거나 창조하지 않은 체계화적 자료를 강조하는 과학이론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거나 바로 인간 추론 오류성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하겠다.

물론 이러한 치명적 타격을 주는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의 의의에서 벗어나 전통적 합리성 관점을 유지하는 길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논한 실용적 합리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받아드리거나, 아니면 이야기적 원리에 지배되는 마음의, 의식의 부분이 있느냐 이에 지배되지 않고 합리성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의, 이성의 부분이 있다고 논지를 전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 자체도, 인간 마음의 다원적 원리를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적 합리성의 원리를 강력히 버티어 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신연결주의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고, 또 이 논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다원적, 역동적, 가변적 원리에 의해 의식의, 마음의 작용이 얽여지고 있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 위에서 이론적 틀을 재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경험적 과학도의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인지심리학자들이 합리성의 논쟁과 관련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과제는, 어떠한 사고 과제와 상황에서는 논리적 합리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오류없는 사고가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는 그보다는 이야기 원리적 또는 개인의 휴리스틱(heuristic)적 다원적 역동성 원리에 의해 사고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더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 4.3. 설명이론에 주는 의의

심리학은 자연을 설명함을 그 메타이론적 본질로 삼고 있는 과학의 한 분야에 지나지 않지만, 역으로 그 모체인 과학의 과학적 설명의 본질과 설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재귀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적 설명을 구성해야 할뿐만 아니라 설명의 인지심리적 과정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심리학자들은 설명의 인지적 틀이 어떻게 발달하며, 설명적 틀의 형성, 적용, 변화의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뒤늦게나마 시작하였다. 아직 경험적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는 않았으나, 이 분야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은 설명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신념체계, 지식체계를 전제로 해야 하며, 설명적 사고의 과정이 복잡한 하위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Miller, 1990). 설명에 내포될 요소의 어떤 측면을 분리하여 주의하며, 범주화하는 과정과 요소의 규정, 설명적 가설의 형성, 관련 스크립트의 탐색 또는 구성, 적용, 설명적 가설의 재구성, 추상화 및 일반화 등의 복잡한 과정이 개입됨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설명의 인지적 기제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인지심리학적 연구, 특히 언어심리학적 연구와 사고에 관한 연구는 또한 '인과적 설명이론'이 인지 현상 전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대안적 설명이론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나 논의는 사회심리학의 이론심리적 분석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Harre & Madden, 1975; Greenwood, 1989, 1991; Margolis, 1990) 인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시발해서 방향지을 수 있는 주체인 개인이 목적, 의도 하에 이루어 내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본다. 인간의 마음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이며, 인간의 행위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황 지워지고, 언어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이며, 모든 시공간에 걸쳐 불변적인 보편성, 규칙성을 요구할 수 없기에 인간 행위에는 인과적 설명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는 외적 물리적 조건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의도하고, 방향짓고,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agency)에 의해 일으며 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설명(기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외적 조건보다는 그 행위 주체의 표상(사고, 신념, 느낌)과 사회적 맥락(타인과의 관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 과학이론이 전제로 한 외적 환경조건만에 의한 보편법칙적 결정론적 인과율로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거나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며, 행위 주체자가 고려된 목적론적 설명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중립적 관찰, 가치와 해석이 배제된 중립적 자료, 객관적 외연과 연결된 양적 자료만을 강조한 전통적 과학이론의 인과적 설명이론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Margolis, 1990).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논의는 전통적 과학관의 설명이론이 편협하게 개념화되어 있으며 수정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인지심리학적 연구의 의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수정된 인과적 설명이나 행위주체자-목적론적 설명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설명들은 전통적 인과적 설명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설명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이러한 설명이 ‘담론(discourse)’이며 ‘텍스트’이며 곧 ‘이야기(narrative)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인간 행위의 이유, 목적, 사회적 기준이나 생성적 힘의 개념은 곧 문학이론, 해석학, 기타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 논하는 ‘이야기’의 틀(Walker, 1977; Bruner, 1986; Sarbin, 1986; Margolis, 1990; Secord, 1990)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유(목적)에 의한 설명이 바로 이야기적 설명이거나 아니면 이야기적 설명의 부분일 수 있다. 이야기적 설명이란 관련된 사건이나 상태들을 통합된 이야기어로 수집시키므로써 행위의 의도적 관점을 명료화할 수 있는 설명이다’(Margolis, 1990, 64쪽).’

이와 같이 인간 행위에 대한 설명이론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그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 실험법이나 신경과학적 방법 이외의 방법론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방법 이외에도, Greenwood(1989)가 제기한 바와 같은 사회적 시뮬레이션 방법, Edwards와 Potter(1992) 등이 제시하고 있는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방법, Harre(1993)가 논하는 기타 방법들(conceptual analysis, repertory grid analysis, account analysis 방법),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방법 등의 질적방법론(Denzin & Lincoln, 1994)이 도입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질적인 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인, 해석 방법의 규정, 기본 분석 단위의 규정 및 범주와 기준의 통일화 방법, 객관화 방법, 연구자들 간의 동의에 이르는 방법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에 몇 세기를 두고 과학자들이 실험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듯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지, 이들 방법들이 지니는 불완전성, 제한점 때문에 행위주체자-목적론적 설명 접근, 즉 이야기적 설명 접근을 포기할 이유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 5. 포스트모더니즘과 심리학의 과학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은 인문과학, 예술 등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는 사회과학, 나아가서는 자연과학에서도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이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통념적 과학관의 해체는 물론 통념적 과학관 이후에 형성된 인지주의적 과학이론들까지도 재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도 심리치료와 사회심리학에서의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어 포스트모던적 관점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심리학의 토대가 점차 해체(해체를 통한 재구성의 의미임)되는 경향이 생기고 또 실제 생활에서의 심리적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종래의 심리학에 대한 불만과 실증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조를 받아 들여 심리학의 개념적 토대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그러하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과 지식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는 전통적 과학관, 즉 모더니즘으로 불리는 전통적 과학관과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 중에서도 과학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다. 그리고 전통적 과학과 같은 규범적 틀에 의해 모든 것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합법화(legitimation)'에 대한 불신이다. 즉 고전적 과학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재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참인 실재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실재가 우리의 지각체계를 통해 거울처럼 복사되고 또 과학적 모델로서 표상될 수 있다는 고전적 모더니즘의 생각을 해체하자는 것이다(Rorty, 1979).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특성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ergen, 1992; Kvale, 1992a, 1992b).

### 5.1. 실재와 인식론

모더니즘을 구현한 전통적 과학이론은 전술한 바처럼 객관적인 세계가 실재하며 이는 우리의 감각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험적 자료가 순수한 자료임을 강조하여 이론과 독립된 추상적, 보편적,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의 대상인 자연과는 분리된 주체로서의 아는 자(knower)를 강조한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세계의 실재에 대한 믿음을 배격한다. 실재는 우리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객관적 실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에서의 경험적 자료란 순수한 자료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해석된 자료이며 이론의 구현화이다. 동시에 어떤 효용성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으로서의 지식,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며, 보편적 지식보다는 국지적(local) 맥락에 의존하는 적절한 실용적 지식, 상황 지워진, 구체적 존재 내에 구현화된 지식, 조망적 지식의 가치, 그리고 '알려진 바'(known)를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 과학에서 이룩한 지식이나 지식 습득 방법에서 떠난다. 이에 첨가하여, 전통적 과학관이 과학적 지식이 언어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적 지식과 그 의미가 언어에 의한 사회적 동의에 의해 구성됨을 강조한다. 리오타르(1992)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이 지식의 총체는 아니다. '과학적 지식'은 다른 종류의 지식인 '이야기적 지식'과 항상 갈등적, 경합적, 加外的 관계에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과학적 진술을 의사소통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이론과 발견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단순한 과학적이고 형식적인 언술에 그치지 않고 항상 일상적 '이야기'의 틀과 '이야기적 지식'에 의존하여 진술한다.

언어와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 과학이론은 언어의 객관적 지시적 기능을 인정하고, 고정된 의미, 객관적 의미, 사회적 맥락과 독립된 개인적, 참 의미를 인정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가 과학적 자료나 이론의 형성과 기술에 있어서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고 의사소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니피앙(significant, 記標)과 시니피에(signifie, 記意)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결합은 일대일의 상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적인 것으로서 한 개념의 의미는 특정 언어의 문법과 문화적 윤곽에 의해 가능해진다. Wittgenstein이 주장했듯이 언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계약에 의해 언어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에서 한 개념의 의미란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며 어떤 논리적 규칙에 의해 대응되는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5.2. 합리성과 주체성

전통적 과학이론은 이성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학적 작업이 이러한 이성의 논리적 합리성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과학 자체가 합리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전통적인 합리성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의 개념을 단순히 인간의 인지와 과학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술과 윤리 등의 생활장면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철학자 Stich(1990)의 ‘이성의 편린화’의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된 바있는 다수의 인지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시사해 주고 있듯이 실용적 합리성으로의 재개념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성의 비합리성(irrationality)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의 합리성 여부를 논란하기보다는 합리성의 개념을 확장하자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합리성의 개념을, 인지, 과학, 기술에만 국한시켜 목적론적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합리성의 고려에서 제외되었던 예술, 윤리 등의 영역까지 합리성이 적용되는 범위 내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지의 배경은 과학적 체계의 버팀목이 되었던 전통적인 ‘논리적 합리성’의 이성 대신에, 예를 들어 이야기의 원리(Bruner, 1986; Sarbin, 1986; Lloyd, 1989)가 구현되는 이성, 즉 감정과 괴리되지 않으며, 사회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에서의 ‘실용적 합리성’의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다(Stich, 1990).

전통적 합리적 이성 개념에 대한 비판은 합리성을 지녔다고 상정되어 오던 자아나 주체의 문제로 연결된다. 전통적 과학이론은 주체, 또는 자아를 세상의 중심이며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주체로서의 자아, 즉 합리적이며 통일된 단일적 실체를 지닌 자아로 개념화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보면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자아란 타자의 관점과 타자의 언술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이처럼 타자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개념의 자아란 본질적인 자아의 소외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으로 상정해 온 자아란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만들어 낸 상상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자아의 해체와 사망의 필연성이 주장된다. 그 대신 고정적이 아니고 잠정적인, 통일적 단일체가 아니고 분할적인, 맥락 독립적이 아니고 맥락 의존적인,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관계에서 재구성되는 새로운 자아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이는 전통적 초(超)이야기 구조의 체계에 의하여 목적적이며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된 자아가 아니라 지엽적 이야기(담화; discourse)의 구조와 힘에 좌우되는 자아, 여러 가지 상이한 역할의 요구에 따라 다른 표면적 자아가 되는 가변적 자아,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라는 텍스트의 부분으로서의 자아의 개념이다. 즉 고전적 자아의 개념이 해체되고 타인과의 정의적, 몰입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자아의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 주체에 대한 이러한 재개념화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자아를 기초

로 하여 제시되었던 전통적 과학이론의 실재론, 인식론 역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5.3. 과학하기와 그 정당화

자연과학적 방법론 위주의 전통적 방법론은 경험적 증거를 획득하여 이를 근거로 귀납적 방법에 의해 이론을 타당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전통적 과학적 방법은 진리의 보장자가 아니라고 본다. 과학적 연구란 방법론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담화적(discursive)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 타협과 협상, 그리고 상호작용이 개입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과학하기에 대해서 다원적 방법론을 주창한다. 실제의 과학적 연구 과정은 추상적이고 보편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지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質的 분석 연구, 상호작용적 연구, 연구자가 개입된 연구를 강조하며 이야기적, 해석학적, 해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전통적 과학관이 삶의 현실과는 괴리된 지식, 이론적 지식과, 이론 검증 중심의 과학 활동, 인식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를 강조하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실 참여적 행위, 현실 생활에 구체화된 지식, 참여 해석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상황 지워진 지식, 적응을 위한 실용적 지식을 강조하게 되고, 상아탑보다는 실용의 전문직이 지식의 생성 체계로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실천적 노력에 의한 지식 획득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지식 습득 방법의 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은 통념적 과학이론의 대체계에 의해 주어지는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 즉 합법화(legitimation)에 대하여 반발한다. 전통적 과학이론에서는 철학자들이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존재론, 인식론, 지식의 정당화론 등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체계를 제시하였다. 통념적 과학이론이라는 이 체계에 의하여 모든 과학과 과학적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주어졌고 이 규칙에 따르는 한에서 그 활동은 합법화, 정당화 되었다. 즉 이 체계가 과학적 지식의 마지막 근거를 정당화한다고 보아 이 대체계에 맞는 논리나 과학적 실행은 옳고 타당하며 확실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리오타르는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grand recit)’ 또는 ‘초이야기(meta recit)’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정당화, 합법화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합법화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보다는 ‘작은 이야기(petit recit)’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리오타르(1992)에 의하면 전통적 과학적 지식의 화용론(pragmatics)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전통적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관찰에의 지칭에 기초한 하나의 언어적 놀이만 인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오직 발화자의 위치와 관련되어 진술되는 것이지 수화자의 맥락, 이해 능력 등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그것이 보고된다고 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에, ‘과학적 담론의 정당성을 전제하고 출발할 수는 없다. 과학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근거를 부여하는 다른 담론(이야기; narrative)에 의지해야 한다’(양운덕, 1994). 따라서 전통적 과학은 ‘이성의 합리성’, ‘계몽’, ‘기술의 진보’ 등의 목적론적 超이야기를 도입하여 자신의 논리 체계의 토대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超이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면서 다른 하위의 작은 이야기들을 조직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모순을 지니기 때문에 버려져야 한다. 리오타르(1992)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비지식일 뿐인 다른 지식, 즉 ‘이야기’의 도움 없이는 과학적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으며 알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학적 지식은 스스로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과학자

신이 금했던 것, 즉 부당(不當) 전제의 오류와 선입견 속으로 빠져든다.

이상의 논의를 심리학과 관련 지워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강조점이 이전의 심리학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를 강조하는 내적 심리 위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떠나, 세상이라는 텍스트(text)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통적 과학이론이 세상과 괴리된 상아탑 속에서 추상화하여 형성된 보편적 지식을 강조하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용적 지식, 실제의 지식, 상황 지워진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 드릴 경우 심리학 내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 다원적 관점을 인정하고, 전통적 학문과 실제의 경계를 와해시키거나 초월하며, 언어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학문적 작업에 삼투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의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무너짐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들을 부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자체가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구주의이거나 이러한 관점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리오타르가 말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야기적 지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유형의 지식인 '과학적 지식'에 기초해 있는 전통적 과학관에 의해 부정될 수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리오타르, 1992).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논쟁들을 일단 접어두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심리학 내의 과학관과 관련하여 기여한 바에 초점을 두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은 심리학 내의 기존의 전통적 과학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심리학 내에서 다원적인 관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반체제적 비판(예: 인본주의 심리학)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그 하나는 심리학의 주제에 대한 메타이론적 재개념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심리학에 새로운 관점, 조망을 열게 해주었다. 다른 하나는 심리학의 주제인 자아 또는 주체를 재개념화하고 실천(practice)의 의의를 다시 강조하게 한 점이다. 결국 모더니즘의 해체, 전통적 과학이론의 해체, 자아의 해체 등을 통해 파괴(destruction)가 아닌 해체(deconstruction)에 의한 재구성의 노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 6. 종합 논의: 심리학의 전통적 과학이론의 재구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심리학이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과학이론의 기본 가정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해 메타이론적으로 논하였다. 심리학의 과학이론이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가정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심리학자들이 과학적 탐구에 대해 잘못 생각한 점 등이 드러난다. 이는 심리학에서 과학에 대하여 잘못 가지고 있는 '신화적 생각들'을 열거한 Bickhard(1992)의 논의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그는 심리학에서 지니고 있는 '과학에 대한 신화들'이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1) 개념은 반드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2)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은 비과학적이다. 3) 과학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어야 한다. 4) 실험이 인과적 모델을 검정(test)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5) 과학은 이론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6) 과학적 진보란 소단위 경험적 문제들에 대한 모델의 집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래야만 최선으로 추구할 수 있다. 7) 이론을 검정하지 않는 연구는 과학적이지 않다. 8) 과학은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규정된다. 9) 과학은 경험적 결과에 의해서만 성장해야 한다. 10) Thomas Kuhn의 과학적 혁명관만이 과학철학의 현

재의 모습을 대표한다. Bickhard는 이러한 생각들이 과학의 전형이라고 간주되는 물리학 내에서조차 적용될 수 없는 경직된 생각이며 ‘신화적 관념’들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있다. 왜 그런지의 이유는 심리학적 연구들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장이 주는 의의에 의하여 쉽게 주어질 수 있다.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 과학관의 핵심적인 전제인 인간관, 이성관, 설명이론이 잘못되어 있음이, 그리고 인지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논의를 살펴보면 심리학이 채택하고 있는 설명이론, 즉 전통적 인과적 설명이론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과학이론을 어떻게 수정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 인식론, 합리성관, 설명이론 등의 어느 것부터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

인식론의 재구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데칼트적, 합리론적, 모더니즘적 인식론이 재구성된다면 자연히 존재론, 설명이론, 합리성관, 언어의미론이 재구성되고 따라서 심리학의 과학이론 자체가 재구성될 것이다.

전통적 과학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식론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와, 인지심리학 연구의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전제와 가정들의 분석에서 지적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을 다시 한번 종합하여 진술해 보겠다.

전통적 과학이론과 인식론은 과학을 하나의 추상적 구조로 보았고 추상적인 언어적 용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학관은 실제의 인간으로서의 과학자들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 어떠한 논리적인 객관적 규칙과 준거에 의해 귀납 추론되어 형성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경험적 증거에서 하나의 이론이 수용되고 정당화되는가 하는 추상적 논리적 규범을 제시하였지, 실제의 과학자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보처리의 한계성과 특수성을 지니며, 감정과 동기에 의해 편향되고, 그의 과학적 착상과 추론의 생각의 바탕이 되는 지식체계와 사고 양식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당한다는 점을 소홀히 했다. 다시 말해 과학자의 인지와 마음 일반이 그리고 그가 인지하는 외계 대상의 현실이 그 과학자가 살아 생활하는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에 대하여 주목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였다. 그 결과, 과학에서의 핵심이 단지 경험적 자료의 획득이나, 이론의 증명이나, 정당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발전과, 메타이론적 재구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과학관은 자연히 과학史,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학사를 합목적적이고, 이성적 합리성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과학의 과학인 과학이론에서 인간적 설명이 배제되고 따라서 과학 자체가 인간의 학문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과학이 인간에게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인식론적 순환 또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게 될 과학이론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윤리적 작업, 사회적 작업, 인간적 작업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 더 명확히 말해서 인간의 인지가 자리잡게 된다. 이 새로운 재구성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과학자와 그의 행위(단순한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가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 본질이 고려된 위에서 인식론과 과학이론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사제인 철학자가 사변적으로 생각해 낸 어떤 논리적인 체계 -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大(超)이야기- 에 의해 규정된 합리적 이성적 체계가 과학의 과학, 즉 과학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먼저 과학을 하는 과학자와 과학자의 인식적 행위의 본질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Hooker, 1987). 그의 인지적 구조와 과정들의 특성(특히 정보처리적 제약성, 편향성, 가류성), 그의 지식 내용과 가치관, 그의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제약과의 관계, 그의 지



식과 행위의 언어적 의미의 본질과 이 언어적 의미가 사회적 맥락과 삶의 맥락에 의해 제약되는(constrained) 정도, 그의 인지를 지배하는 심적 원리,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로서의 그의 이성적 행위의 원리, 형이상학적 신념 등의 측면들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어떠한 존재가 과학이라는 행위를 하는가가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과학에 대하여, 과학의 과학인 과학이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인간 존재들인 과학자들의 집단, 즉 과학계로부터 어떻게 하여 그러한 추상적 개념의 과학이 출현하게 되는가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 관점에서 과학이론을 논하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철학자나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사변적 직관에 근거한 논의나 추론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학이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추구하는 한, 경험적 자료, 즉 인간 인지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인지 행위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이론의 논의에는 필연코 인지의 과학, 인지의 심리학이 논의되어야 하며 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인지사회심리학자, 인지발달심리학자, 정서-동기와 인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등을 포함하는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지식사회학자, 인지인류학자, 언어의미론학자 등이 과학의 과학자들로서, 과학이론가들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바 있는 Quine(1969), Goldman(1986), Kornblith(1986), Giere(1988), Corlett(1991), 그리고 Bhaskar(1975), Hooker(1987) 등의 과학철학자와 이론심리학자들이 논했듯이 과학의 인지이론, 과학의 인지심리학, 더 나아가서는 과학의 인지과학이 과학이론에 필수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학이론이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철학이 과학의 신학으로서 선형적으로 다른 모든 학문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전통적 과학관에서는 철학이, 철학적 교조(教條)가 모든 다른 학문 분야의 시금석이 되었었다. 철학으로부터 인식론, 언어의미론, 합리성론, 정당화 방법론이 선형적으로 신탁(神託)처럼 제공되고 규정되어 왔다. 철학은 과학으로부터 아무 것도 취하지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할 필요가 없는 시祭의 학문이라고 생각되었었다. 이러한 신정적(神政的) 체제는 매우 편리한 체제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식론적, 존재론적 난해한 물음들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철학이 규정해 놓은 규범을 믿고 그에 따라 충실히 경험적(소위) 자료들만 수집하고 정당화된 귀납적 추론만 하면 되었지 인식론적 순환성과 같은 토대론적 문제들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정(神政) 하의 편리와 안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새로운 과학철학이 메타이론적으로,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그리고 인지인류학 등)이 경험적으로, 이러한 신정적 전통적 과학이론이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인식론, 새로운 합리성관, 새로운 과학이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연주의적 인식론(김영남, 1994) 또는 인지주의적 인식론과 실용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떠오름은 통념적인 전통적 과학이론이 한 때를 풍미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이론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통적 과학이 출발할 때에는 인식론이 먼저 있었고 또 합리성관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 위에서 과학이 나중에 세워졌다. 그러나 지금의 인지심리학적, 인지과학적,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 의하면 그 역이 참이 된다.

인식의, 인지의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먼저 있고 그런 연후에 과학이론이 서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원리, 합리적 이성적 사고의 원리, 인간 행위의 원리가 먼저 인지과학에서 규정된 연후에 과학이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Margolis(1990, 68쪽)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심리학의 전혀 새로운 국면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다.’

## 7. 맺는 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에 전통적 과학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과학적 심리학에 몸담고 있는 심리학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 자기 자신의 이론과 다른 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다. Rychlak(1993)의 논지를 빌어 이 문제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종래의 '이론 -> 경험적 자료 -> 결론'의 틀은 후건공정의 편향을 지니는 것이다. 이 틀 하에서는 자신의 이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짓게 마련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개념적 바탕에서 출발한 두 이론이(예: 병행적 처리이론, 계열적 처리이론) 동일한 현상, 동일한 증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과학이론적 접근은 이론의 타당화에 확실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대안으로 質的, 현상학적, 이야기 근거적, 해석학적, 해체적, 대화 근거적 분석 접근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들도 어떤 형태로든 타당화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절차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론의 타당화, 정당화의 유일한 길이 없는 한, 상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받아 들인다면 다른 사람의 이론적 설명에 대해서 그 자체가 틀렸다고 논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비록 그 이론이 기초하는 토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틀이나 접근,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지니고 있는 내적 구조, 명료성, 보다 넓은 주제와 관련한 시사성(instructiveness), 적절성(relevance)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이론보다 다른 새 대안적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성급히 새 것으로 설명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되는 이론적 바탕(토대) 가정들을 상세히 재분석해야 한다. 앞서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기초학문 이론들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가정들, 학문 분야별 암묵적, 명시적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이론적 생각들은 어떠한 의미들 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설명하려는 바탕 가정들이 내가 현재 설명하려는 연구문제에 적절한가? 나의 바탕들이 나의 이론적 결론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바탕 위에 나의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로 얼마나 뚜렷이 근거하고 있는가? 나의 바탕을 이론 이론들이 얼마나 큰 덩이의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 경험적 증거들은 일관되는가? 그 증거들과 가정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이론을 정말로 내가 전제한 가정들에 비추어서 제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전제로 삼지도 않은 가정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물음들을 심각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장래의 심리학에서는 경험적 검증 연구의 연구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론적 주장이나, 이론적 근거, 개념적 기초를 분석하는 연구자, 즉 이론심리학자들의 역할이 증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각종 기초개념의 의미, 각종 이론의 바탕 가정들, 각종 이론의 내적 일관성, 어떤 연구가 어떤 이론을 지지한다는 주장의 합법성들을 가려내는 데에 이론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심리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눈을 뜨고 이론심리학적 비판적, 분석적인 인식론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적 연구는 전통적인 과학적 틀을 강조한 나머지 경험적 자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의 하나는 경험적 증거를 엄밀히, 확실성을 지니고 획득할 수 있도록 경험적 방법론도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근거하게 되는 바탕적 가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수집된 경험적 자료가 과연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탕 가정적 근거에서 엄밀히 內査하는 과정이 과학적 심리학 연구에 추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전통적으로 무시되거나 소홀히 대해왔던 메타이론적 관점에 대한 재평가와 인정의 필요성, 그리고 그를 통해 전통적 경험적 검증 연구의 메타이론적 재구성의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지, 경험적 연구 접근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메타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적 자료는 맹목적일 수 있으나,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경험적 자료가 없는 이론일 것이다. 경험적 자료가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경험적 자료에 대한 그릇된 범주화, 그릇된 맹신, 그릇된 해석을 경계하는 것이지, 좋은 경험적 자료의 필요성, 경험적 자료의 획득 방법의 엄밀화 및 체계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 자료와 메타이론적 틀의 상보성과 균형을 되찾자는 것일 뿐이다. 또한 사회심리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 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여 행위주체자-목적론적 설명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계론적-인과적 설명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담화분석, 프로토콜 분석 등의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적 방법, 특히 실험방법이 대체되거나 소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과학사적으로, 심리학사적으로 그 효율성이 인정된 실험법은 더욱 발전시키고 세련화하여야 할 것이다. 질적분석법의 사용은 오히려 실험법의 상보적 비중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과학의 커다란 발전은 단순히 경험적 자료의 집적에 의해서도, 다양한 이론의 전개에 의해서도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학문의 도약적 발전이란 그 연구 대상인 현상의 본질적인 복잡성, 다원적 복합적 구조와 기제를 파악하는데에 있다. 즉 학문의 커다란 발전이란 연구 대상의 현상적 차원의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단순히 한 차원으로 보았던 현상을 새로운 다른 수준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파악하고, 인정하며, 그에 맞는 설명이론의 적용, 그에 맞는 이론적 요소의 규정, 그에 맞는 경험적 실체 단위의 규정과 관찰, 그에 맞는 방법론적인 다원화와 세련화, 이러한 것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연구 대상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 현상이 다원적인 역동적 기제라면, 우리의 설명도, 연구방법도 다원적이어야 할 것이다.

심리학은 행동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연과학적 접근만으로 연구하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undt가 심리학을 독립 과학으로 출발시키면서 심리학의 양면성을 모두 살려 연구하려 한 그 옛날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적 양면을, 아니 이러한 모더니즘적 이분법적 구분으로 나눌 수조차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다. 바로 Koch(1976)가 'Psychological Studies'라고 심리학을 명명한 것, 또 현재의 심리학의 일각에서 심리학을 'Psychological Science'로서 다루고 있는 것, 또한 심리학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들과 예술학이 수렴되는 학문인 인지과학의 하나로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 등, 이 모두는 심리학의 양면성, 아니 다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자들이 하나의 길, 하나의 공통적인 접근과 방법론만을 선택하여 연구한다면 이는 심리학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양면적, 다면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한 쪽에서는 자연과학적 과학이론을 반영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 입장이 수정된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기계론적 인과론에 의해

현상을 설명하는 다분히 경험주의적인 접근이 계속 시도되고 더욱 세련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사회심리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 사회과학적 틀이 살려진 접근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론적 인과론이나 논리적 합리성 체계 중심의 접근보다는 목적론적 설명이(Rychlak, 1981, 1988; Greenwood, 1989), 인간의 의도와 이유가 고려된 설명체계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유-목적론적 설명체계가 본질적으로 이야기적 설명의 한 유형이라면(Margolis, 1990), 인간의 삶의 본질을 반영하는(Wittgenstein의 Lebensforum) ‘이야기’원리에 근거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Bruner, 1986; Sarbin, 1986; Lloyd, 1989; Margolis, 1990).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양적 분석의 경험적 방법론과 병행하여 질적 분석의 경험적 방법론, 그리고 개념과 이론들의 메타이론적 분석 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학의 각 분야별로, 변화된 인식론, 변화된 과학이론에 걸맞게 개념적 기초들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접근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철저한 메타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야별 암묵적, 명시적 전제와 가정들이 규정, 정리되고, 핵심 개념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설명이론적 기초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인식 자체의 본질 또는 인간 오성의 본질은 실천의 기능을 통하여 규정된다는 베르그송의 말을 따라(볼노오, 1991), 실제의 실천적 상황들, 임상적, 상담적, 교육적 상황 장면 등에서 드러나는 심리학적 지식의 일차적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심리학 실험실 연구에서 획득되는 추상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실천적 실제 상황에서 얻어지는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 타당성과,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실천 심리학자들의 실천 학문적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편협한 실험 심리학 우월주의가 불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실천적 영역의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영역에 대한, 그리고 심리학 일반에 대한 개념적 기초를 이론심리학적으로, 메타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심리학적 탐구의 틀을 자신 있게 추구하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상아탑적 과학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상보적으로 조화되고, 인과적 설명 접근과 목적론적-이야기적 설명 접근 등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심리학은 인간 심리-행위 현상 전반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유용한 설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은 고전적 물리학보다도 복잡한 본질을 지닌 학문이다. 어떠한 하나의 관점도 심리학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사려 깊게 철저히 생각된 관점들 하나하나를 심리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각을 그대로 살린다면 그제야 한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Sanders & Rappard, 1985, 264쪽).

#### [ 참고문헌 ]

- 김영남 (1994). 과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 서울: 서광사.
- 리오타르, 장-프랑수아(지음), 이현복(옮김)(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울: 서광사.
- 볼노오, O. F. (지음), 백승균 (옮김) (1991). 인식의 해석학: 인식의 철학 I. 서울: 서광사.
- 신중섭 (1994). 인식론 없는 합리성. 표재명 외 지음. 헤겔에서 리오타르까지 (289-318). 서울: 지성의 샘.
- 양운덕 (1994).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 철학. 표재명 외 지음. 헤겔에서 리오타르까지 (241-286). 서울: 지성의 샘.
- 이순목 (1990). 측정이론의 세 줄기.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39-161.
- 이정모 (1988a). 과학적 물음의 본질: 과학철학적 관점들과 그 시사점, 한국심리학회(편), 실험심리 연구법 총론: 가설설정, 설계, 실험 및 분석 (37-72). 서울: 성원사.

- 이정모 (1988b). 실험의 논리 : 과학적 설명과 추론, 한국심리학회(편), 실험연구법 총론: 가설설정, 설계, 실험 및 분석 (73-116). 서울: 성원사.
- 이정모 (1988c). 과학적 연구의 전제와 가정들, 한국심리학회 1989년도연차학술대회 초록, 83-88.
- 이정모 (1989). 심리학 연구와 수, 확률 및 통계적 추론의 개념적 기초 문제, 한국심리학회 1989년도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 초록, 39-44.
- 이정모 (1992). 통계적 분석-추론과 실험 설계의 개념적 기초. 성균관 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미발간).
- 이정모 (1995).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기본 가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심리학 통계연구세미나 초록, 197-249.
- 이정모, 이재호 (1994). 기억의 본질: 구조와 과정적 특성. 이정모(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94**. 서울: 성원사.
- 존슨레어드, 필립(지음), 이정모, 조혜자 (옮김) (1991). **컴퓨터와 마음: 인지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클라인, 모리스 (저), 박세희 (옮김) (1984). **수학의 확실성**. 서울: 민음사.
- 클라인, 모리스 (저), 김경화, 이혜숙 (역) (1994). **지식의 추구하고 수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J.R. (1990). *The adaptive character of though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aron, J.(1994). *Thinking and deciding*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salou, L.W. (1992). *Cognitive psychology: An overview for cognitive scientis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artlett, F.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skar, R.(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eeds: Leed Books.
- Bickhard, M.H.(1992). Myths of science: Misconceptions of science in contemporary psychology. *Theory & Psychology, 2*, 321-337.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rniak, C. (1986). *Minimal ration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Coren, S., Ward, L.M., & Enns, J.T. (1994). *Sensation and perception (4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 Corlett, J.A.(1991). Some connection between epistemology and cognitive psychology. *New Ideas in Psychology, 9*, 285-306.
- Cosmides, L.(1989). The logic of social exchange: Has natural selection shaped how human reasons? Studies with the Wason selection task. *Cognition, 33*, 187-276.
- Craik, F.I.M., & Lockhart, R.S.(1972).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 671-684.
- Dennett, D.C.(1978). *Brainstorms*. Hassocks, Sussex: Harvester Press.
- Dennett,D.C.(1991).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Brown & Co.
- Denzin, N.K., & Lincoln, Y.S.(Ed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onald, M. (1991). *Origins of the mind: Three stages in the evolution of culture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Edwards, D., & Potter, J. (1992). *Discursive psychology*. London: Sage.
- Evans, J. St. B. T. (1989). *Bias in human reasoning*. Hillsdale, N.J.: Erlbaum.
- Evans, J. St. B. T. (1993). Bias and rationality. In K.I. Manktelow, D.E. Over (Eds.). *Rationality: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pp. 6-30). London: Routledge.
- Evans, J.St. B.T., Barston, J.L., Pollard, P.(1983). On the conflict between logic and belief in syllogistic reasoning, *Memory & Cognition*, 11,3, 293-306.
- Evans, J. St. B. T., Manktelow, K.I., & Over, D.E., (1993). Reasoning, decision making and rationality. *Cognition*, 49, 165-187.
- Eysenck, M.W. & Keane, M.T. (1990). *Cognitive psychology: A student's handbook*. Hillsdale, N.J.: Erlbaum.
- Fassnacht, G. (1982). *Theory and practice of observing behaviour*. London: Academic Press.
- Faust, D.(1984). *The limits of scientific reasoning*.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Press.
- Gergen, K.J.(1992). Toward a postmodern psychology. In S. Kvale (Ed.).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pp 17-30). London: Sage.
- Giere, R.N.(1988).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man, A.I.(1985). The relation between epistemology and psychology, *Synthese*, 64, 29-68.
- Goldman, A.I.(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man, N. (1965). *Fact, fiction, and forecast*. New York: Bobbs-Merrill.
- Greenwood, J.D. (1989). *Explanation an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ical science: Realism and the social condition of ac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Greenwood, J.D. (1991) *Relations & represent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ocial psychological science*. London: Routledge.
- Haberlandt, K. (1994). *Cognitive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 Hacking, I. (1965). *The logic of statistical infe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e, R. (1993). *Social being* (2nd. Ed.). Oxford: Blackwell.
- Harre, R., & Madden, E.H. (1975). *Causal powers*. Oxford: Basil Blackwell.
- Hooker, C.A.(1987). *A realistic theory of scie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1982). (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en, G. (Ed.) (1982). *Statis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 Keren, G., & Lewis, C. (1993). *A handbook of data analysis in the behavioral sciences: Methodological issues*. Hillsdale, NJ: Erlbaum.
- Koch, S.(1976). Language communities, search cells, and the psychological studies. W.J. Arnold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5: Conceptual foundations of psychology* (pp. 477-559).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ornblith, H.(1986). *Naturalized epistem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vale, S.(1992a). Introduction: From the archaeology of the psyche to the architecture of cultural landscapes. In S. Kvale (Ed.).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pp. 1-16). London: Sage.
- Kvale,S.(1992b). Postmodern psychology: A contradiction in terms? In S. Kvale (Ed.).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pp. 31-57). London: Sage.
- Lloyd, D.(1989). *Simple minds*. Cambridge, MA.: MIT Press.
- Madsen, M.B.(1987). Theoretical psychology: A definition and systematic classification. In W. J. Baker, M.E. Hyland, H. van Rappard, & A.E. Staats (Eds.). *Current issues in theoretical psychology* (pp. 165-174). Amsterdam: North-Holland.
- Margolis, J. (1990). Explicating actions. In D.N. Robinson, & L.P. Mos (Eds.).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pp. 39-74). New York: Plenum.
- Maslow, A H. (1966), *The psychology of science: A reconnaissance*. South Bend, Indiana: Gateway Editions.
- Mayers, R.E. (1992). *Thinking, problem solving, cognition* (2nd Ed.). San Francisco: W. H. Freeman.
- Miller, G.A. (1990). On explanation. In D.N. Robinson, & L.P. Mos (Eds.).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pp. 7-37). New York: Plenum.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 Murdock, B.B.(1982). A theory for the storage and retrieval of item and associa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89, 609-626.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akhill, J., & Johnson-Laird, P.N.(1985). The effect of belief on the spontaneous production of syllogistic conclusions.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7Q, 553-570.
- Plyshyn, Z.W. (1981). The imagery debate: Analogue media versus tacit knowledge. *Psychological Review*, 87, 16-45.
- Quine, W.V.O.(1969). *Ontological reality and other essays*.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snick, L.B., Levine, J.M., & Teasley, S.D. (Eds.) (1991). *Perspectives on socially shared cog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rty, R.(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ch, E.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Rumelhart, D.E., McClelland, J.L., & LNR Group (1986).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Vol. 1). Cambridge, Mass.: MIT Press.
- Rychlak, J.F. (1981). The case for a modest revolution in modern psychology. In R.A. Kasschau, & C.N. Cofer (Eds.). *Psychology's second century* (pp. 57-101). New York: Praeger.
- Rychlak, J.F.(1988). *The psychology of rigorous humanism* (2nd.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1991).
- Rychlak, J.F.(1993). A suggested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for psychology: In theory, not method. *American Psychologist*, 48, 933- 939.

- Sanders, C., & Rappard, H.V. (1985). Psych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K.B. Madden & L.P. Mos (Eds.).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 Sarbin, T.R.(Ed.) (1986).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 Savage, C.W., & Ehrlich, P. (1992). *Philosophical and foundational issues in measurement theory*. Hillsdale, NJ: Erlbaum.
- Schum, D.A. (1994). *The evidential foundations of probabilistic reasoning*. New York: Wiley.
- Secord, P.F. (1990). The need for a radically new human science. In D.N. Robinson, & L.P. Mos (Eds.).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pp. 75-87)*. New York: Plenum Press.
- Simon, H.A. (1983). *Reason in human affairs*. Oxford: Basil Blackwell.
- Stich, S.(1990). *The fragmentation of reason*. Cambridge, Mass.: MIT Press.
- Stove, D.C. (1986). *The rationality of in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 Suppe, F.(1977).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oulmin, S. E.(1984). Philosophy of science. *Encyclopaedia Britannica: Micropaedia*. (Vol. 16). London : Britanica.
- Tulving, E., & Thompson, D.M. (1973). Encoding specificity and retrieval processes in episod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0, 353-375.
- van Dijk, T.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processing*. New York: Academic Press.
- Walker, N. (1977). *Behaviour and misbehaviour: Explanations and non-expla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Weatherford, R. (1982).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obability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G. Anscombe). Oxford: Blackwell.